

축제도시 서울 비전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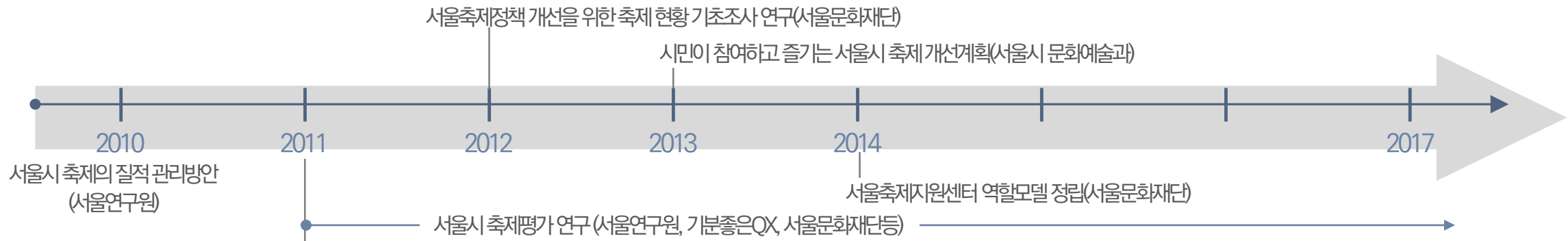




I. 연구개요

01 연구배경

그동안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쳐 축제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연구 및 사업 추진



그러나 매번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축제 정책은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

이에 서울시 축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축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 시행

- 연구기간 2018.04.16.~2018.11.15. (7개월)
- 연구방향 축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정책방향 설계 ▷ 서울시 축제 발전에 기여
- 연구진 라도삼, 이정현

※ TF위원: 추미경(위원장), 류정아, 오성화, 윤성진, 이병민, 이훈



II. 축제도시와 서울시 축제 현황

- 01. 축제도시란
- 02. 서울시 축제 개최현황
- 03. 서울시 축제도 지원현황
- 04. 서울시 축제평가 체계
- 05. 서울시 축제행정 및 제도 체계

01 축제도시란? : 축제도시의 개념과 요건

축제도시는 아직 문화도시나 창조도시처럼 컨셉화되지는 않은 개념

- IFEA WORLD(세계축제협회)가 2010년부터 매해 전 세계도시를 대상으로 축제도시를 지정

IFEA World : 1956sus 세계적인 축제 네트워크 구축과 축제 경영정보 및 아이디어 공유 목적으로 설립. 50여개 국이 회원으로 가입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출범(IFEA Korea). 역량 강화 워크숍, 축제 교류 등을 중심으로 활동

- 도시 비전으로서의 축제도시를 연구한 것은 김종관의 연구
(김종관, “축제도시 핵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축제도시를 △도시를 상징하는 축제가 있고, △(도시)정보의 지속적 관심과, △중장기적인 계획, △축제개최를 위한 기반과 여건 등을 갖춘 도시로 규정

축제도시의 기본 요건 : 축제로 상징되는 도시 이미지, 시민들의 삶에 자리잡은 축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 축제로 상징되는 도시이미지

다양한 축제 혹은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축제 등 해당 도시하면 떠오르는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갖춘 도시

- △다양한 혹은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 축제, △그것을 상징하는 축제도시 이미지, △일정한수의 (축제관광) 외래 관광객, △축제 관련 세계네트워크 및 주요 도시와 관계 등

- 시민들의 삶에 자리잡은 축제

여러 축제에 시민들의 일상적 관람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도시

- △축제관광 시민, △자원봉사 등 축제개최 활동 시민, △축제 개최시 도시 인프라 사용에 대한 동의 정도, △축제로 인한 도시경제의 파급효과와 체감도 등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 여건(충분한 축제산업과 인력)과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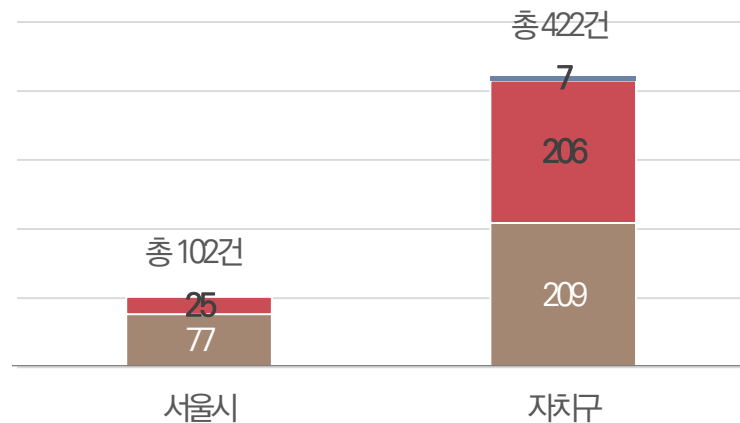
- △축제관련 산업, △축제관련 인력/기업/조직/단체, △축제산업/인력 자원과 육성시스템, △공정하고 합리적인 축제 지원체계, △적절한 축제지원 기구 및 법·제도적 인프라 등

02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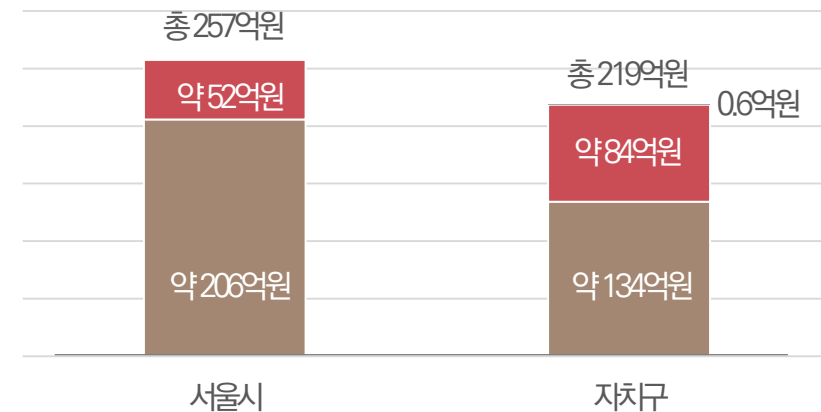
서울에서는 현재 무수히 많은 축제가 개최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민간 등 여러 주체가 개최
- 2017년 기준, 서울시(자치구 포함)가 주관하는 축제 건수는 524건, 예산은 476억원
 - 서울시 축제: 총 102건, 총 257억원
 - 자치구 축제: 총 422건, 총 219억원

<2017년 축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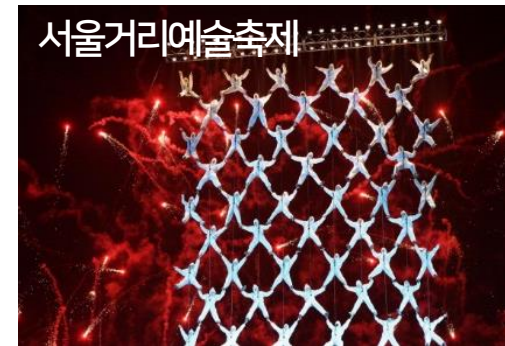
<2017년 축제 총 예산>



■ 직접개최 ■ 예산지원 ■ 비예산지원

03 서울시 축제 지원 현황

① 직접 추진 : 4대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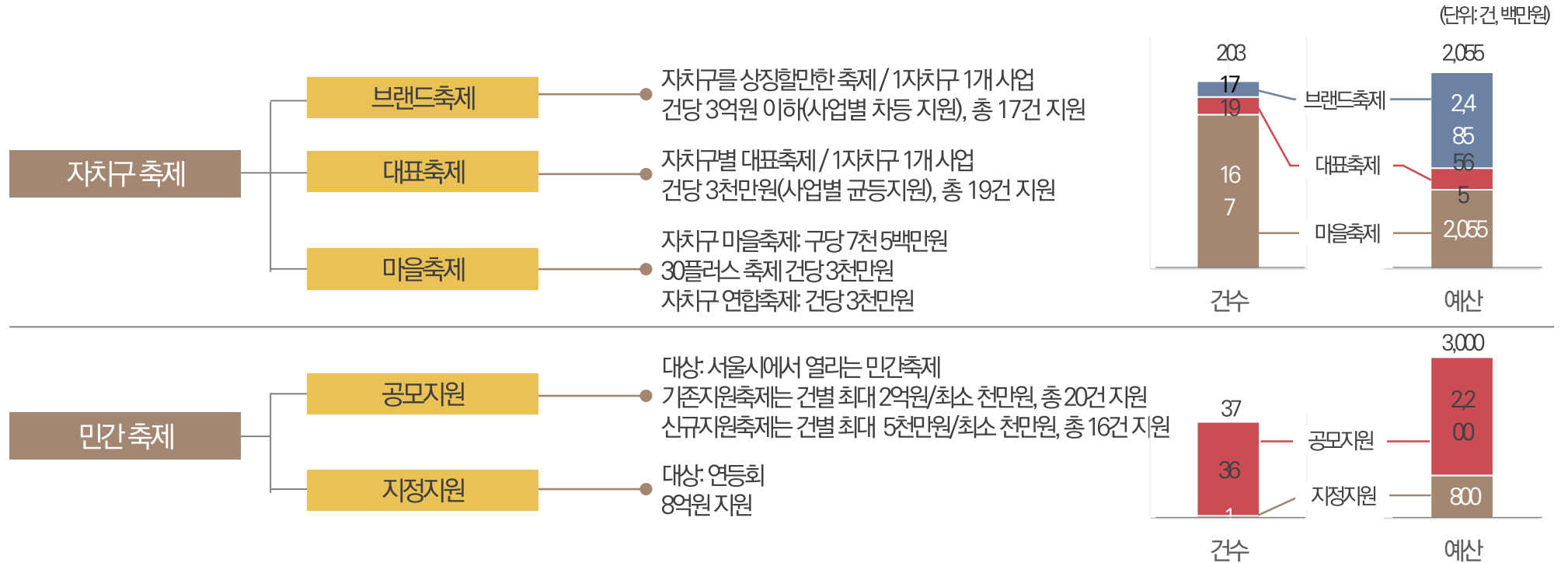


개최이력	20회(1999년)	10회(2008년)	16회(2003)	4회(2014)
개최방향	전문음악축제, 시민드럼경연 등	한여름의 문화바캉스	도심을 무대로 하는 전문거리예술축제	김장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나눔 문화축제
개최기간	2018.05.25.~05.26.	2018.08.10.~08.11.	2018.05.25.~05.26.	2018.05.25.~05.26.
개최장소	서울광장, 문화비축기차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창계광장	서울광장, 창계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서울광장, 무교로
주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총감독/예술감독	있음(현재 5년 연임 중)	없음	있음(현재 6년 연임 중)	없음
예산(2018)	4억원	5억 2천2백만원	16억원	9억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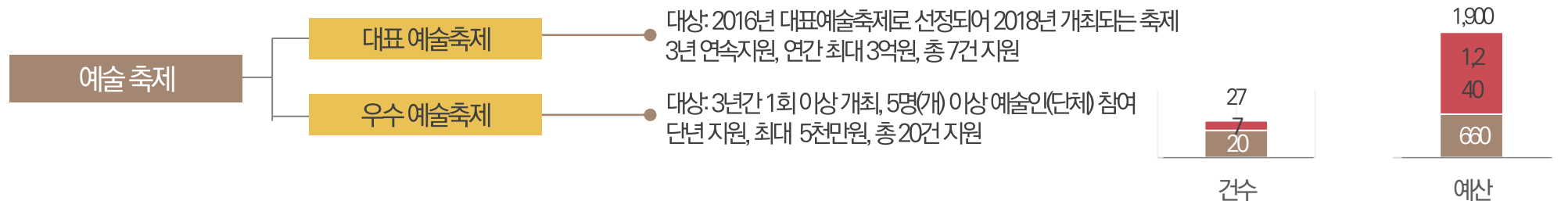
※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발 추진 : 봄-드럼, 여름-케이팝 등 대중음악, 가을-인디밴드, 겨울-클래식

03 서울시 축제 지원 현황

② 재정지원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03 서울시 축제 지원 현황

③ 간접지원

○ 서울시 문화예술과 - 행정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을 추진

행정적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시장상 수여: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축제 등
행사장소(서울광장 등) 확보·조정: 아리랑 페스티벌, 종로한복축제 등
타부서 협력·조정: 연등회, 아리랑 페스티벌,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교통통제, 안전확보, 편의시설, 청소 등: 서울세계불꽃축제

간접적 지원

- 축제 홍보 지원: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문화포털/축제사이트, 서울시 관광홈페이지 등
축제 평가 및 환류(서울문화재단): 평가대상 축제 83건(2018년)
축제지원센터 운영(서울문화재단), 축제인력 양성(한강사업본부-한강 청년 코디네이터)

○ 서울문화재단 - 축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 브랜드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모인 “축제 브랜드 마케팅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축제
홍보/마케팅/브랜드 운영/실행 방법 컨설팅

역량강화프로그램

- 축제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사례공유 및 협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

04 서울시 축제 평가 체계

	4대 축제, 자치구 지원축제, 민간 지원축제	예술축제
평가기관	서울문화재단 축제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평가구성	전문가 현장평가(70%) + 관람객 만족도(30%)	현장평가(70%) + 행정평가(30%) ※현장평가 = 전문가(50%) + 시민모니터링단(20%)
평가위원	전문가: 축제당 3명 배정(축제경력 10년 이상) 관람객: 축제별 100~400명 선정	시민모니터링단: 축제별 3~5명 배정/ 1인당 3개 평가 전문가: 축제당 3~4명 배정
평가절차	평가대상 축제 관계자 사전 설명회 ▷ 평가를 위한 사전참고 자료 수합 ▷ 축제 평가 ▷ 1차 평가결과 통보 ▷ 평가보완 신청 접수 ▷ 평가보완 및 결과 반영 ▷ 축제별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 공유 및 환류	전문가/시민 축제 배정 ▷ 현장모니터링 ▷ 전문가 좌담회(축제 개별 시행) ▷ 종합평가
평가지표	축제콘텐츠 축제운영 홍보 시민참여/파급효과 축제주제, 축제콘텐츠 완성도, 축제장소 조직구성 및 협력구축, 현장운영체계/인력운영, 안전관리, 관객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축제브랜딩 및 홍보전략, 홍보성과 시민향유 및 참여수준, 사회적 효과	현장평가 행정평가 시민모니터링단: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효과 전문가평가단: 축제콘텐츠, 축제운영, 홍보, 시민참여/파급효과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운영, 사업효과
평가환류	4대 축제: 차기년도 개최 방향에 반영(감독 연임여구 결정 자료로 활용) 지원축제: 예산 조정을 통해 반영	축제종료후, 결과 및 모니터링 의견 공유하는 전문가 좌담회 운영 평가 결과를 향후 동일 자원사업 심사시 반영

05 서울시 축제 행정 및 제도 체계

① 행정체계



② 제도 체계

- 독립 조례(서울시 문화예술축제 육성 조례)에서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내로 편입 (2012.12.31.)
- 현재 〈서울시 문화도시 조례〉 제8장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제37조(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제39조(민간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등
 - 축제개최 및 민간축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 조례의 특징
 - 다만,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에서 전문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축제의 기획·운영 등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해 현 조례로도 민간조직 내 위탁은 가능

06 서울시 축제현황에 대한 평가

그간 서울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 제기 ▷ 그러나 뚜렷이 개선된 것은 없어

제기된 문제점

- 서울시 축제 정책적 지원 및 관리 범위와 기준 설정 모호
축제의 도시 마케팅 기능에 치우친 기존 논의
- 축제의 통합적 관리 기능 부재
축제 직접 추진에 치우친 예산 책정으로 주인 없는 축제 양산
- 기존 지원 및 평가 방식은 축제의 다양한 유형과 성장단계에 대한 고려 부족
- 통합적 홍보마케팅, 자원 정보 구축 및 네트워킹에 대한 높은 수요

개선방향

서울 축제 가치 전환과 방향 정립

행정의 기능을 직접 추진에서 지원과 관리로 전환

축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평가제도 설계

간접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의 확보

서울문화재단 서울축제정책개선을 위한 축제현황 기초조사 연구, 2012

- 시민 관심도가 낮고 참여도가 미흡
- 관주도형 축제, 전문성과 창의적 기획엔 한계
- 축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미흡
-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차별화된 축제 부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가치 전환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축제의 전문성 강화

컨설팅, 통합관리, 예산효율화로 축제의 체계적인 종합관리

서울만의 차별화된 축제육성으로 관광자원화

서울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서울시 축제개선 계획, 2013



Ⅲ. 축제도시 서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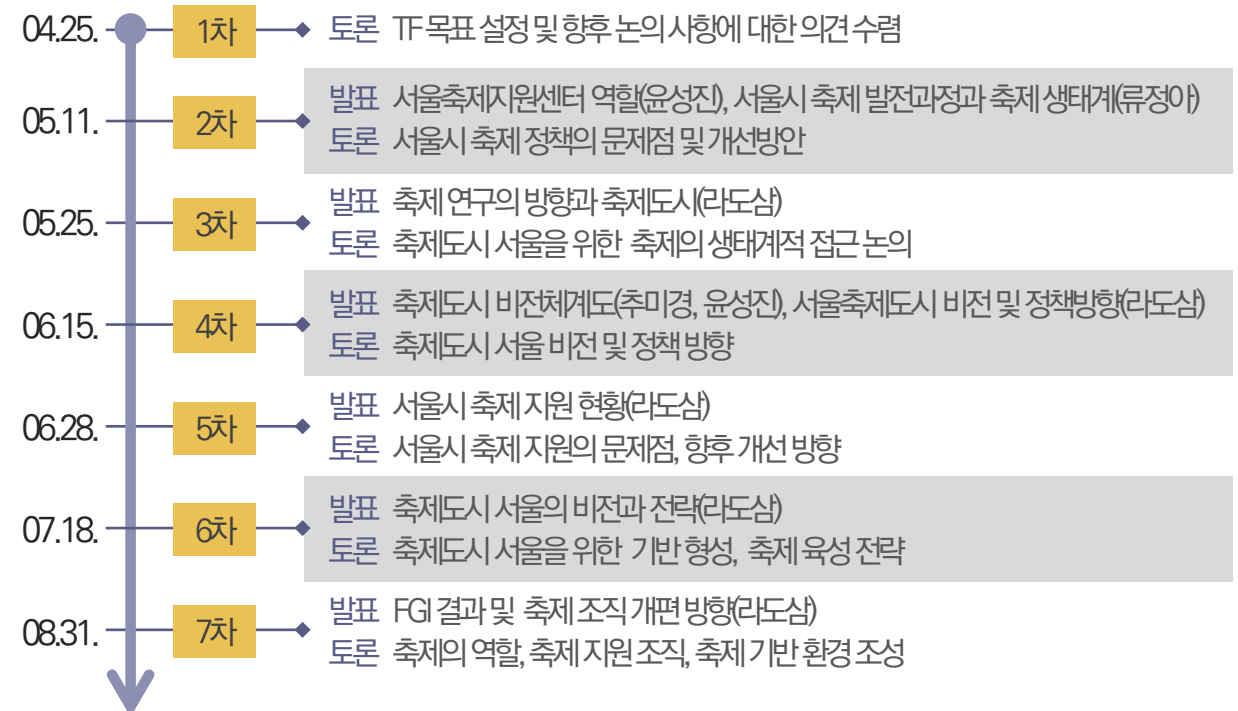
- 01. TF 회의
- 02. FGI
- 03. 전문가 설문조사

01 TF 회의

서울시는 2018년 4월부터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TF 운영

- 서울대표축제를 발굴·양성하고 체계적인 축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축제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TF 구성
- 4월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TF 회의를 개최

TF 구성	
전문가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윤성진(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추미경(문화다움 대표이사)
당연직	라도삼(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 백승우(서울문화재단 축제팀장), 강지현(서울시 문화예술과장)
주요 논의 내용	
서울시 축제현황 및 문제점 진단 축제도시 서울에 대한 비전 설정 서울시 축제지원 정책 개선 방안 서울시 축제 종합적 관리 방안	



01 TF 회의

회의결과① 서울시 축제 정책의 문제점

- 축제를 관리·조정하려는 관점 자체가 문제
 - 축제를 관리·조정하겠다는 관점에서 **지원 중심**으로 근본적 변화 필요
- 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통합 지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 현재는 축제 직접 개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 직접 개최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에 초점을 두어야
- 변화된 축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 시민의식 상승, 마을축제 확산 등 축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축제 행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
- 축제 현황 조사 및 관련 데이터 구축 미비
 - 연간 400건이 넘는 많은 축제가 개최되지만 이에 대한 DB화, 아카이빙 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회의결과② 축제도시 서울로 비전 설정

- 축제 정책에 있어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할 시기
- **축제도시 서울**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의 체계를 새로 설정해야
 - 축제를 소비 위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축제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것 필요
 - 축제를 산업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축제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 서울시는 축제를 직접 개최하기 보다는 축제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에 주력해야 함
 - 축제도시 서울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기구 설립 등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

01 TF 회의

회의결과③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방향

● [정책방향] 관리에서 **지원**으로,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 축제를 직접 개최하기 보다는 개최되는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함
- 직접적 예산지원보다는 통합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가야 함
 - 통합마케팅, 축제컨설팅, 축제종합포털 구축 등

● [지원방안] 4대축제는 전면적으로 개편, 민간축제 지원 원칙 확립해야

- 4대축제: 거리에술축제를 대표축제로 하고, 상설전문조직을 설립해 운영
 - 나머지 3개의 축제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
 - 계절별 대표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민간의 축제 중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민간에 이양된 3개의 축제를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축제: 유형별·성장단계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관광축제, 마켓형축제 등과 같이 축제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 민간축제 대상 축제 인증 시스템 구축

● [기반] 축제 조례 제정, 축제위원회 설립

- 축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잘 담아내고 이에 따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축제 조례 제정 필요
- 축제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설립 필요

● [기타]

- 축제 개최시 원스탑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축제통합지원센터 설립
- FSR(Festival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이 축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 축제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서울축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02 FGI

축제산업 생태계 현황 파악 및 정책방향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 개최

- 축제 예술감독, 축제 제작 및 운영 감독, 축제 대행사, 축제 관련 협회 등 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4번 진행. 15명 참여

일 시 2018.08.22.(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회의실 좌 장 윤성진(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참석자 손형채(前 궁중문화축전 총감독), 윤종연(2014~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조영선(2018 광명인형극제 예술감독), 조영신(2018 동작구 도심속바다축제 총감독) 조정국(2018 문화기있는날 총감독), 주재연(서울아리랑페스티벌 총감독)	1차 2차 3차 4차	일 시 2018.08.23.(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회의실 좌 장 윤성진(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참석자 박재호(前 서울빛초롱축제 총감독), 손민식(축제감독) 조형제(서울거리예술제 제작총감독)
일 시 2018.08.24.(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회의실 좌 장 윤성진(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참석자 김봉석(주)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상무, 김상영(주)아트카오스 이사 이성환(주)컬처웨이 대표, 정원식(前 (주)씨포스트 본부장)		일 시 2018.08.24.(금) 오후 2시 장 소 스페이스노아 스파크룸 좌 장 라도심(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 참석자 김정진((사)한국이벤트 프로모션협회장) 엄상용(한국이벤트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예술감독 그룹

제작 및 운영감독 그룹

대행사 그룹

협회 그룹

02 FGI

1차 전문가 포럼 예술감독 그룹(6명)

● [현황] 서울시 축제 많은 한계 내포

- 담당자 순환보직, 행정 간섭, 단기계약(1년), 각 부서별 축제 진행 등 다양한 문제점 내포
-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

● [제안] 축제 조직 구성, 조례 제정, 인력 양성 지원 해야

- 시장 산하에서 서울시 전체 축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설립
- 서울시의 축제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는 별도의 축제 조례 제정
- 축제 인력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지원
- 서울광장 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장소 개발
- 축제 자원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



2차 전문가 포럼 제작 및 운영감독 그룹(3명)

● [현황] 서울시 축제는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모두 담보가 어려워

- 콘텐츠 생산, 인력, 인프라, 관련 자료 등 성과 축적이 될 수 없는 체계

● [제안] 축제 조직 및 시스템 개선, 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통합 사무국 운영
- 입찰시의 실적제한, 자격 입찰, 가격 입찰 등의 시스템을 개선
- (가칭)서울 축제 아카데미 등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과거 추진했던 프로그램 중 의미있는 것을 재발행하여 서울만의 콘텐츠를 재정립



02 FGI

3차 전문가 포럼 대행사 그룹(4명)

● [현황] 축제 지원 시스템 자체에 많은 문제점 내포

- 관 주도 축제, 담당자의 순환보직, 오르지 않는 예산, 정산 시스템 등이 문제
- 인건비 미인정, 일반관리비 미보장 등 시스템의 문제가 허약한 축제 생태계 형성 초래

● [제안] 유형별 축제 지원, 시스템 개선, 인력 양성

- 축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접근하는 방식 필요
- 입찰시 실적 조건 등의 완화
- 축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 민간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



4차 전문가 포럼 협회 그룹(2명)

● [현황] 구조적·제도적으로 축제산업 시장이 성장할 수 없는 체계

- 객관화 된 수수료 부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적 인식, 입찰시스템의 문제 등

● [제안] 시스템 개선,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 인건비 인정, 입찰 시스템 개선, 대행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형성
- 축제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한 운영권(라이선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
- 축제층 개발을 위해 타겟별로 콘텐츠화 하는 것 필요
- 전문인력 양성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것 필요

03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 목적 : 축제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조사 대상 : 축제감독, 축제 PD, 축제 평가자, 축제 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

- 서울시 축제 심의위원, 축제도시 서울만들기 TF 위원, 2018 서울문화재단 축제 평가위원, 한국문화기획학교 회원, 한국 페스티벌 감독 모임 등 관련 전문가 총 200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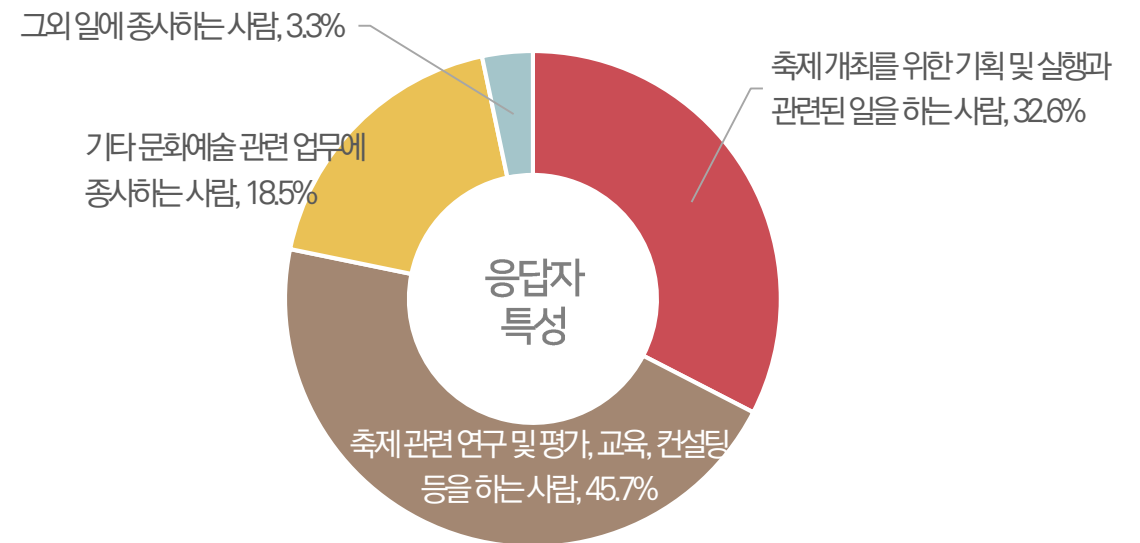
조사 기간 : 2018.10.8. ~ 2018.10.19. (약 2주간)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온라인 설문을 이메일로 발송
- 이 중 92개의 유효 설문 회수

조사 내용 : 서울시 축제 현황 및 정책 평가, 서울시 축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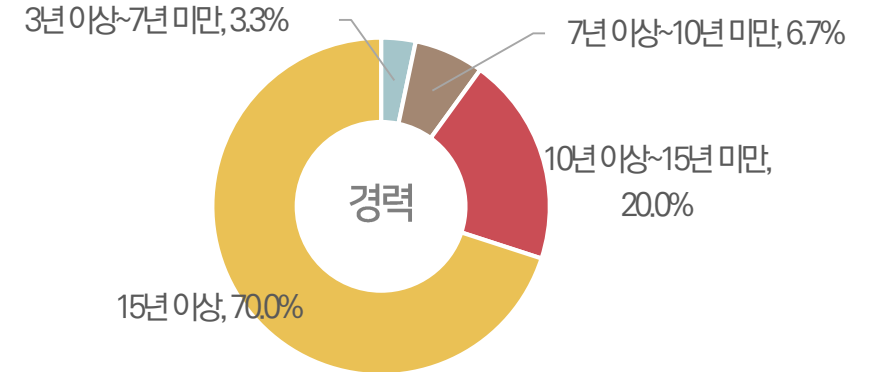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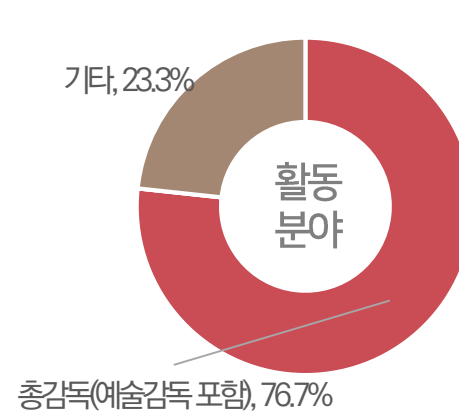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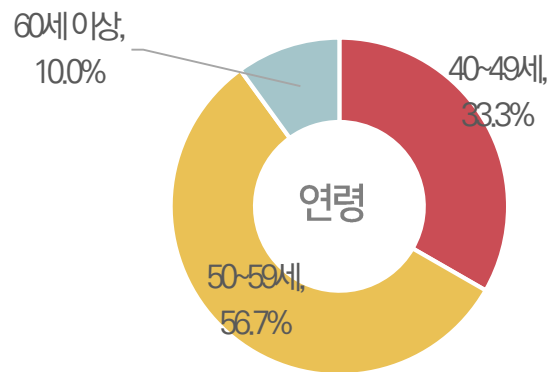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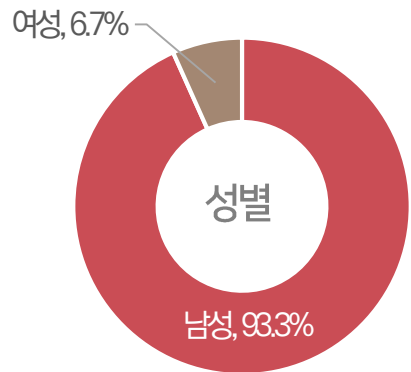
응답자 현황



0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축제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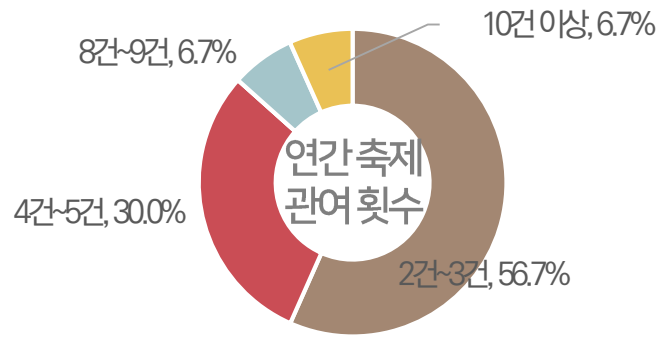
성별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연령은 40~59세, 활동분야는 총감독, 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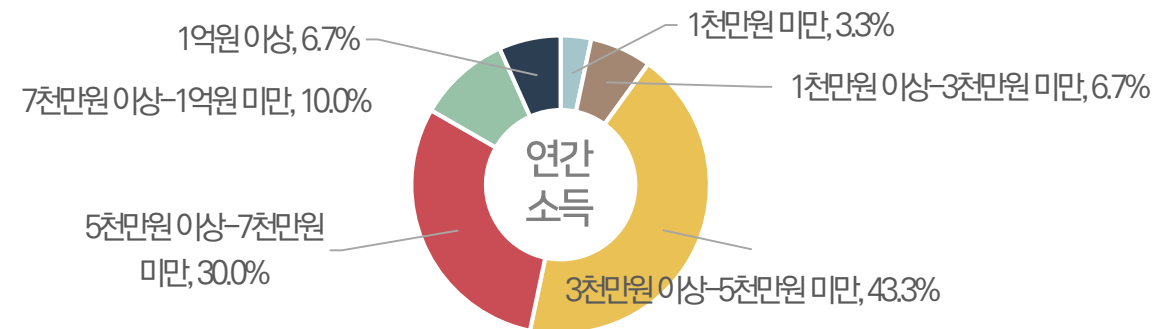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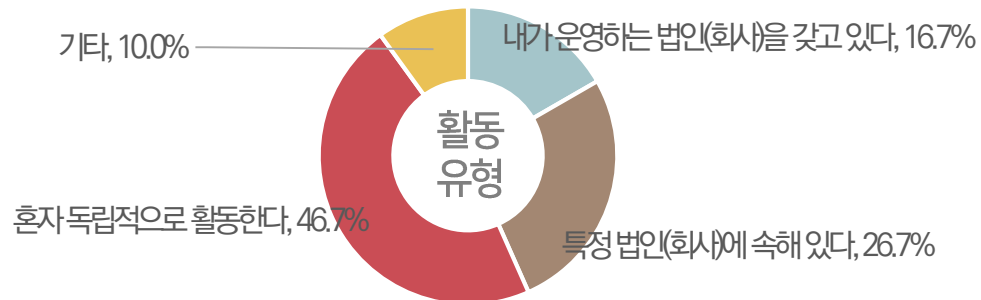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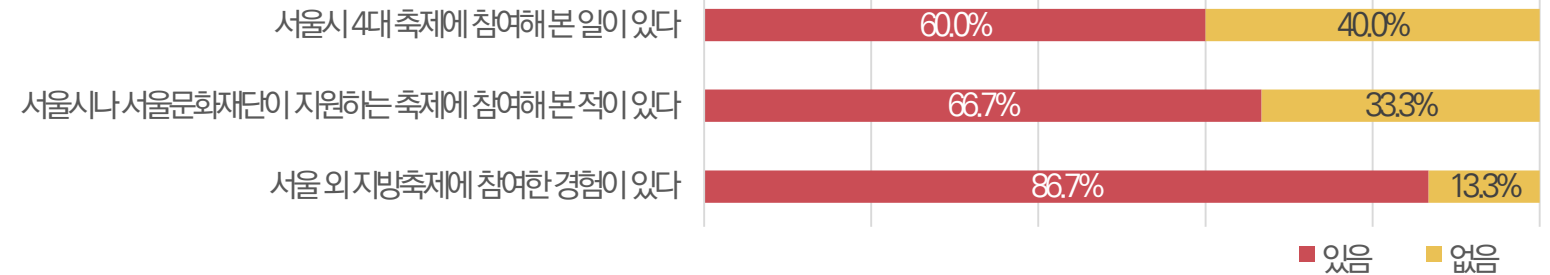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축제 감독

연간 관여하는 축제는 2~5건, 서울시 관련 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약 60% 이상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축제로 인한 연간 소득은 3천만원~5천만원



축제 관련 경험 여부(최근 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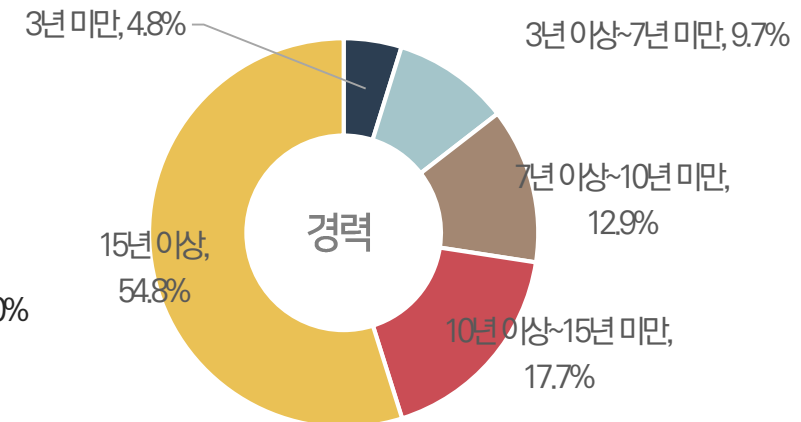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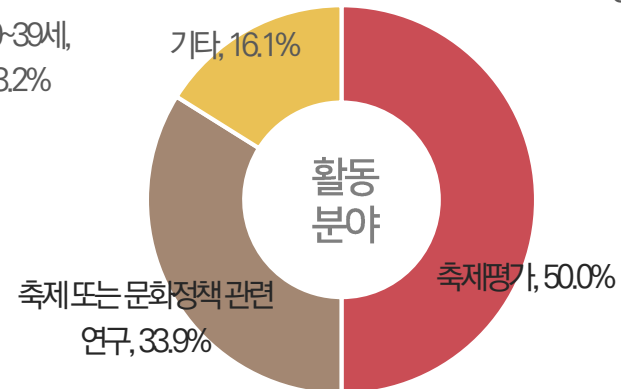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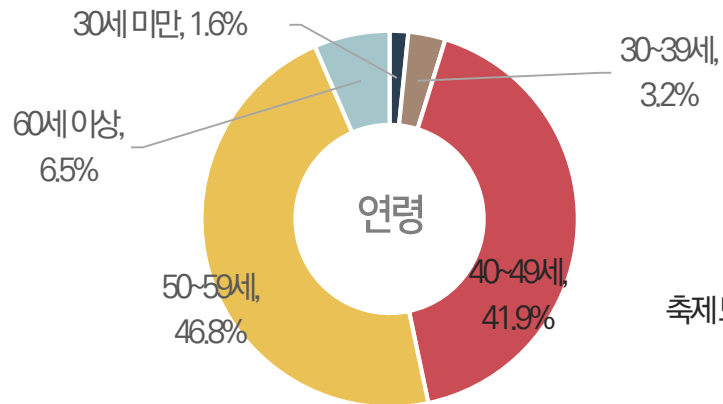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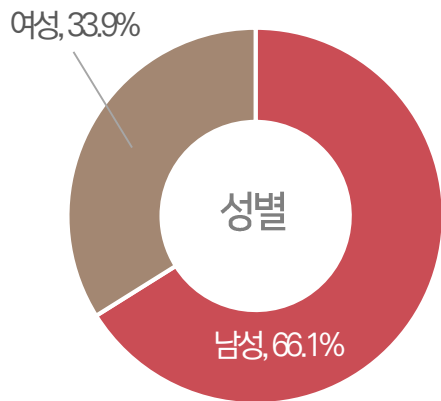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축제 관계자

성별은 남성이 조금 더 많으며, 연령은 40~59세, 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활동분야는 축제평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50.0%), 축제·문화정책 관련 연구자(33.9%), 기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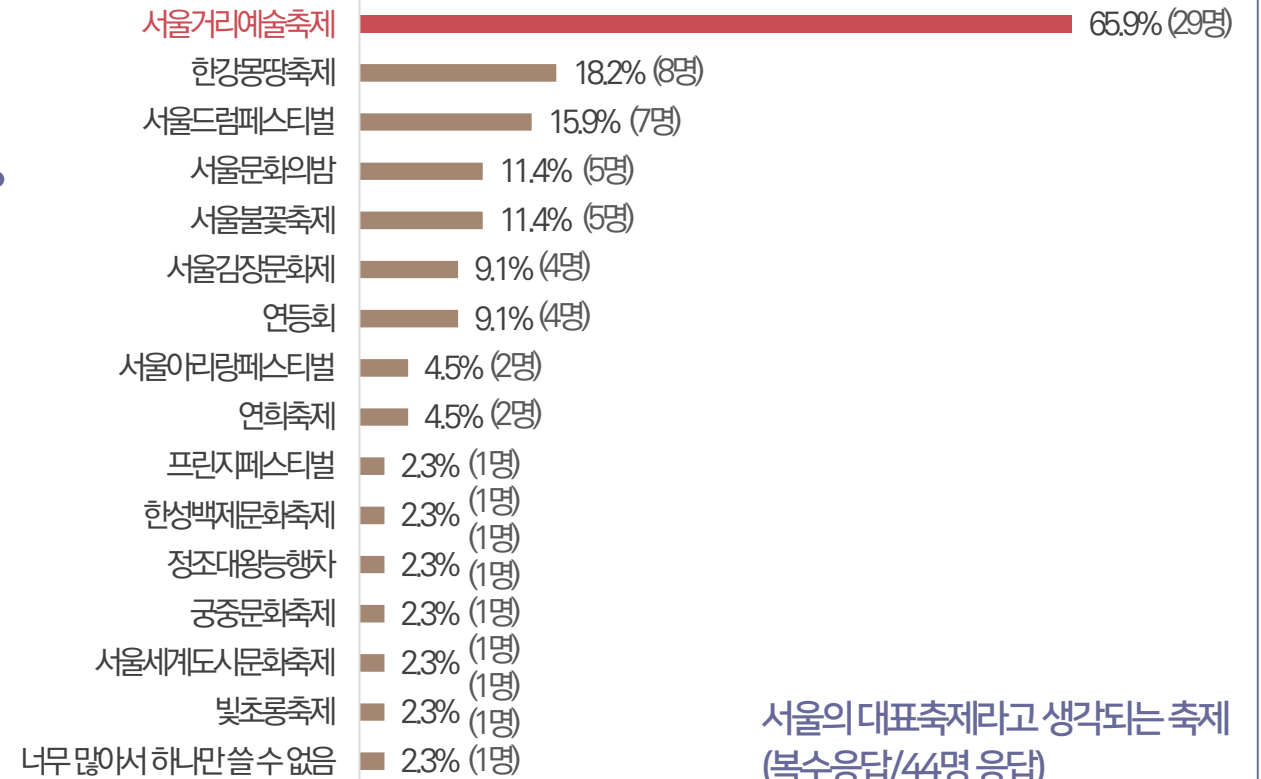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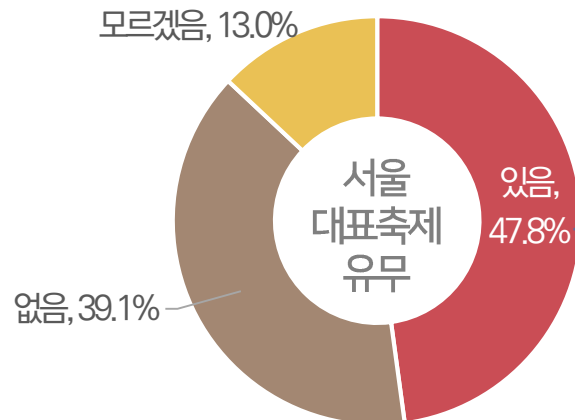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현황

서울을 대표·상징하는 축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47.8%

-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대표축제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 그외 한강몽땅축제, 서울드림페스티벌 등이 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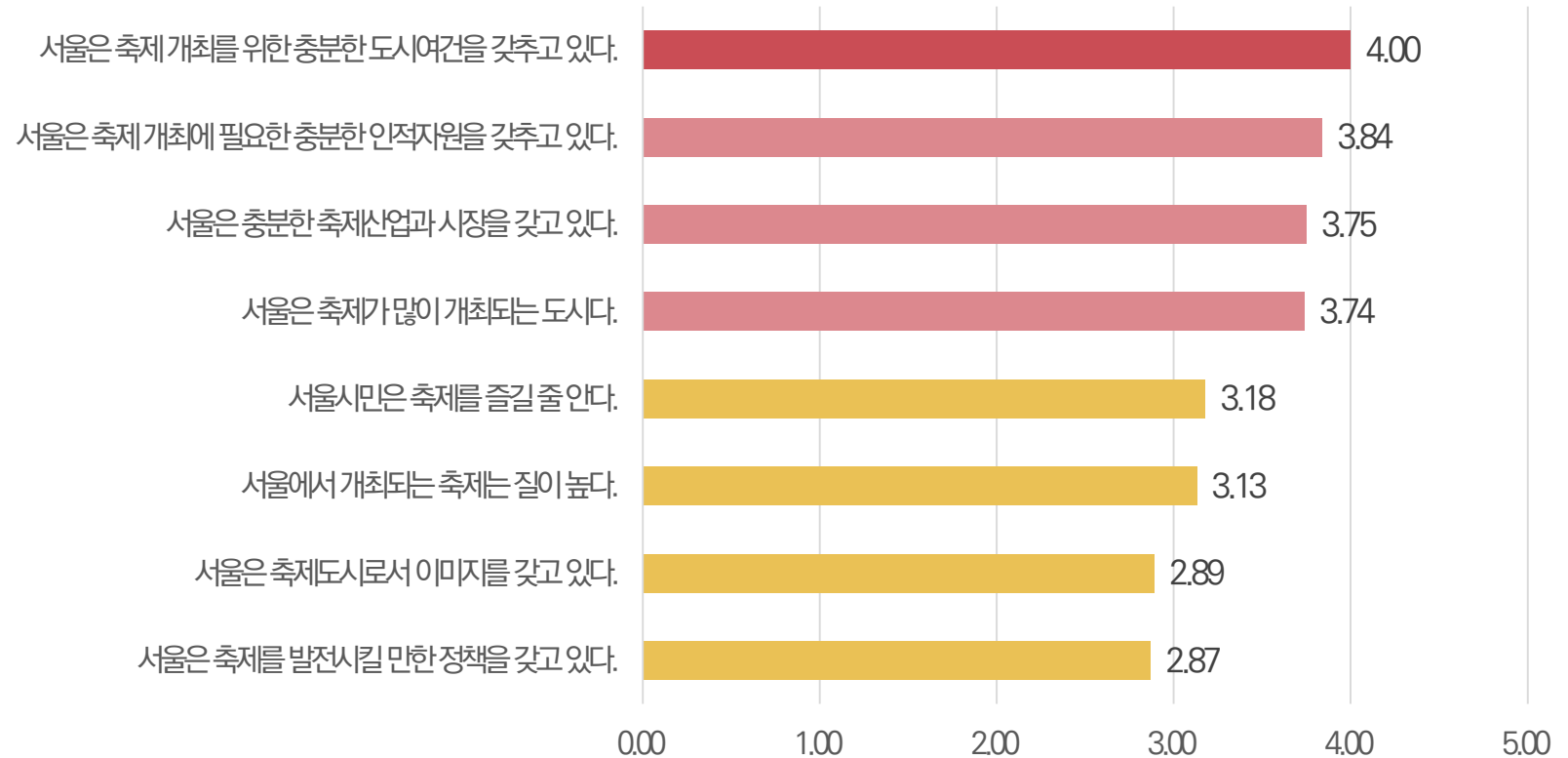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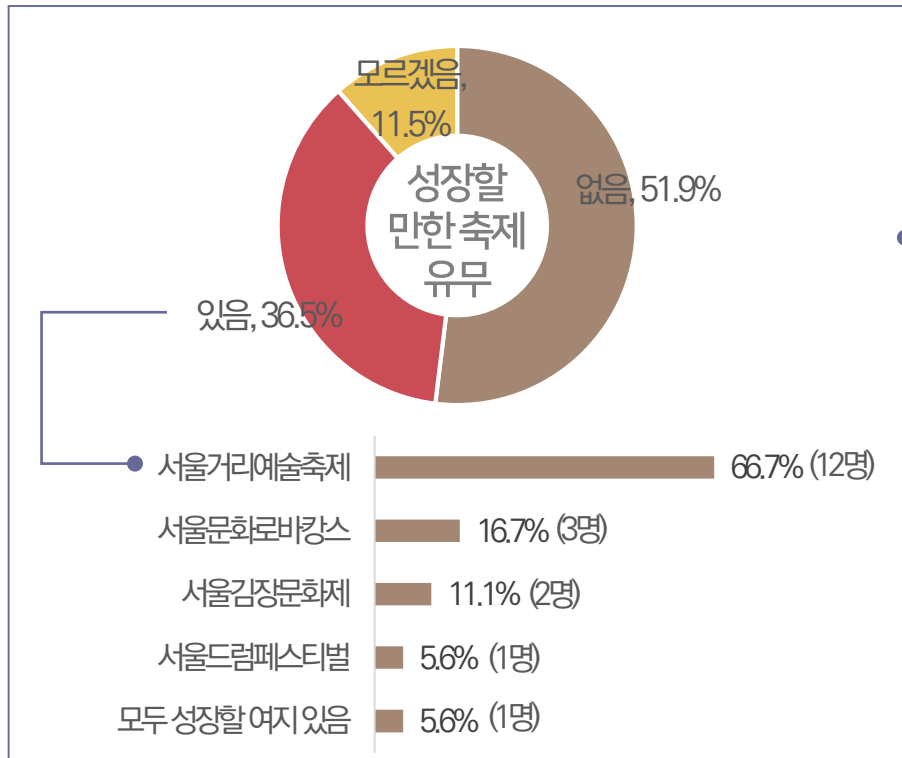
서울은 축제 개최를 위한 기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 서울은 축제 개최를 위한 충분한 도시여건, 인적자원, 축제산업과 시장, 축제 개최 건수 등을 갖고 있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
- 그러나 이에 비해 축제 정책, 축제도시로서의 이미지는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03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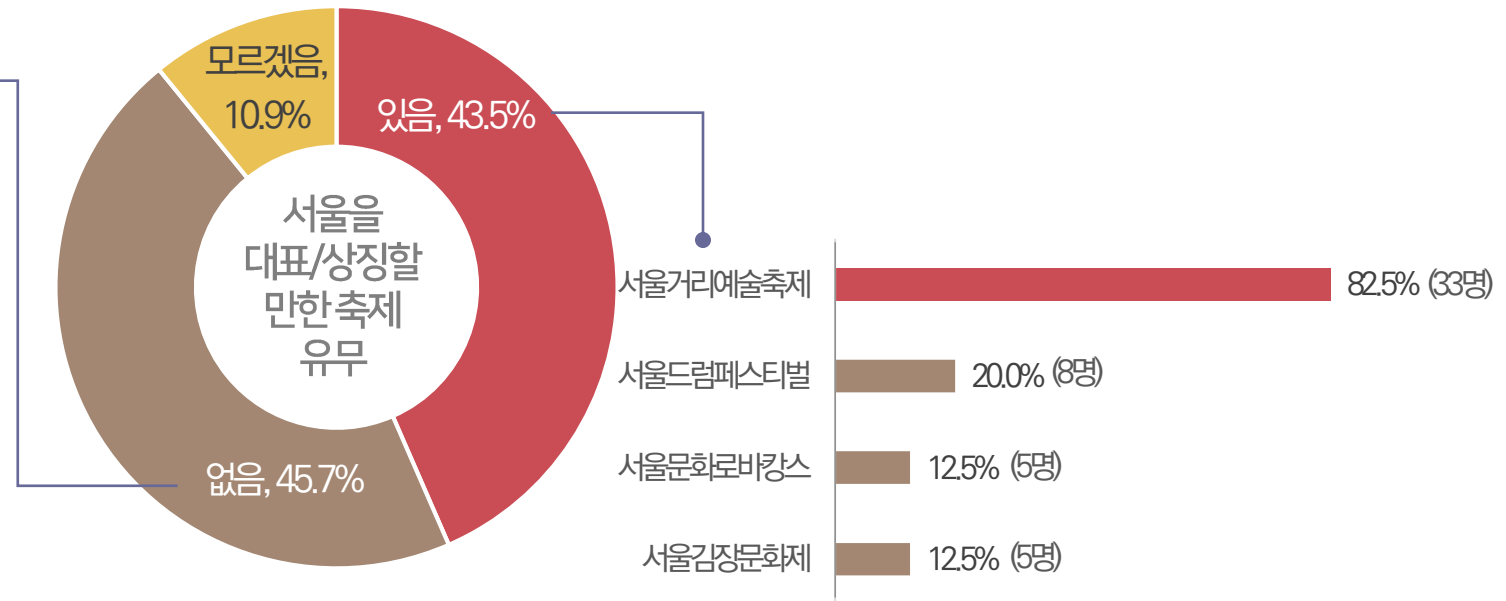
서울시 축제 현황 - 4대 축제



향후 서울을 대표/상징하는 축제에 성장할 만한 축제(복수응답/18명 응답)

4대 축제 중 서울을 대표·상징할 만한 축제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은 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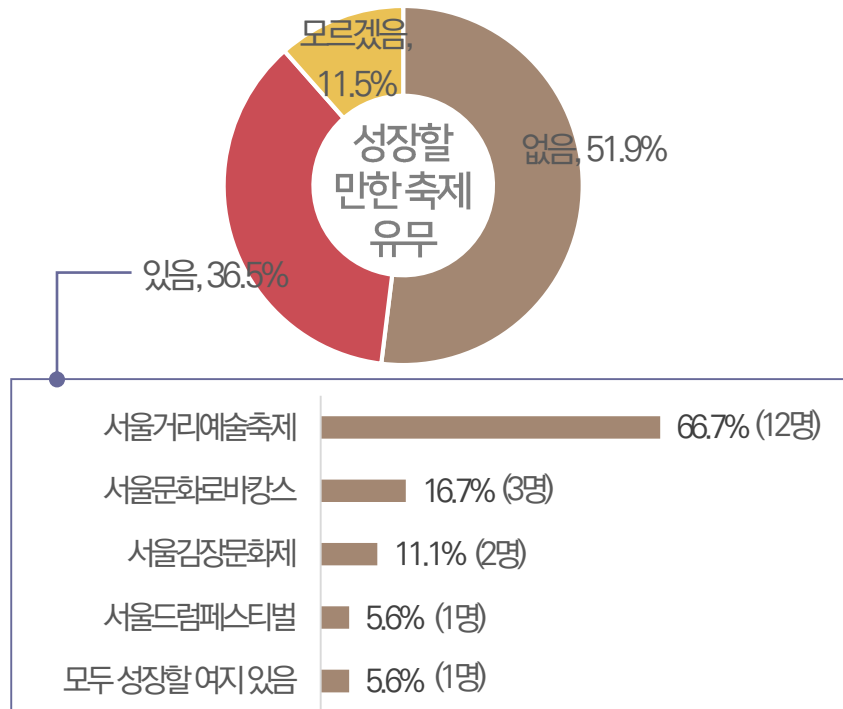
- 대표·상징할 만한 축제가 있다는 의견: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압도적으로 높아
- 대표·상징할 만한 축제가 없다는 의견: 성장할 만한 축제 또한 없다는 의견이 과반
_ 성장할 만한 축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서울거리예술축제를 가장 많이 꼽아



서울을 대표/상징할만 하다고 생각되는 축제(복수응답/40명 응답)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 4대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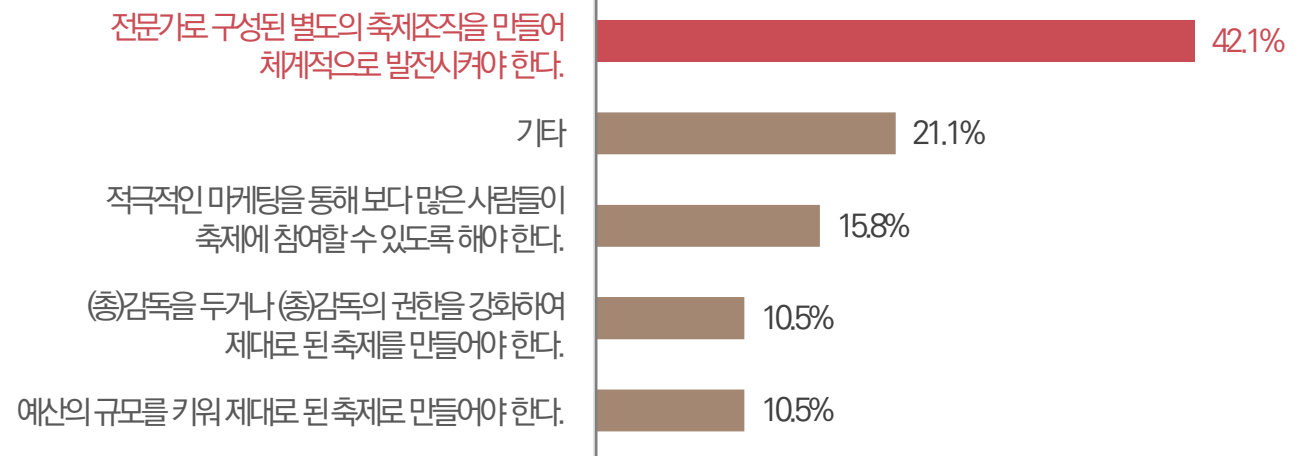


향후 서울을 대표/상징하는 축제에 성장할 만한 축제(복수응답/18명 응답)

4대 축제 중 서울을 대표·상징할 만한 축제에 성장할 만한 축제가 있을 경우,
이 축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축제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이 축제들을 서울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축제에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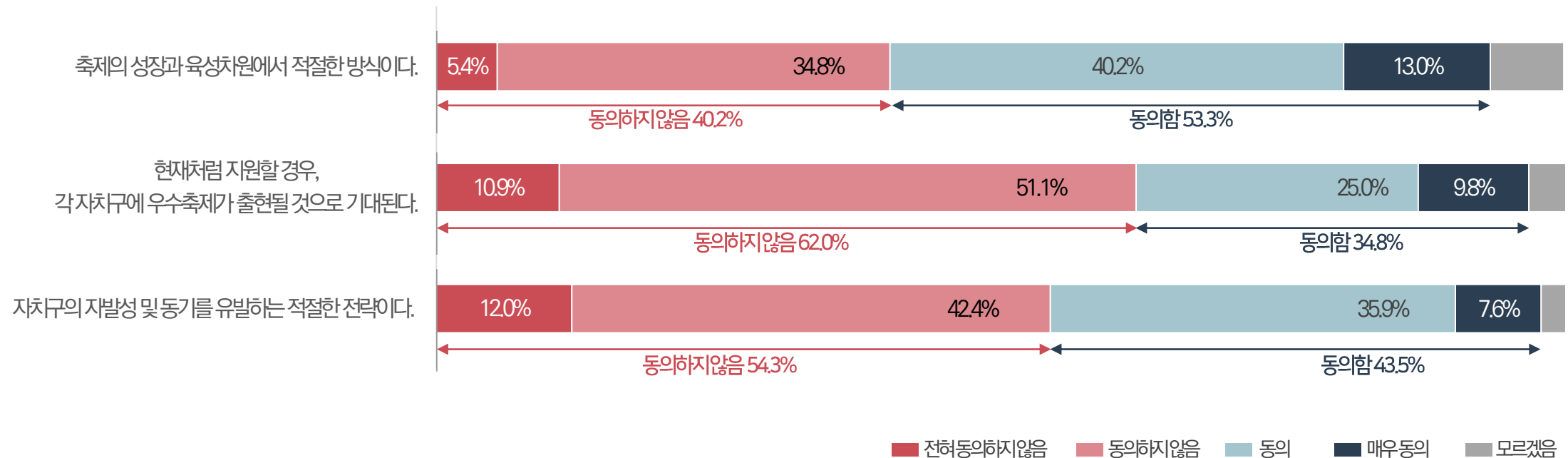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 자치구 축제

자치구축제의 지원 방식이 축제의 성장과 육성차원에서 적절한 방식이라는 의견(53.3%)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는 약간 많아

- 그러나 이런 지원방식이 우수축제 출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았음
- 자치구의 자발성 및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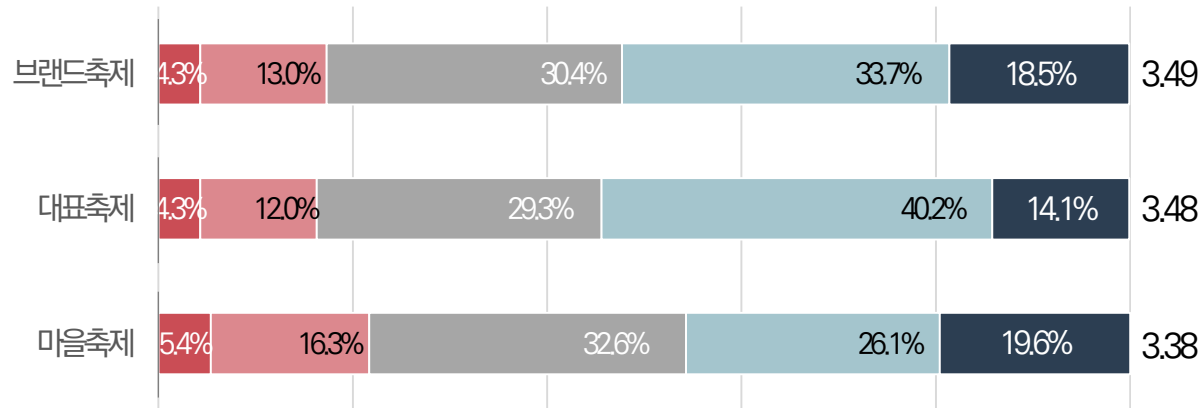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 자치구 축제

자치구축제의 지원규모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아

- 브랜드축제와 우수 대표축제는 과반 이상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
- 마을축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약간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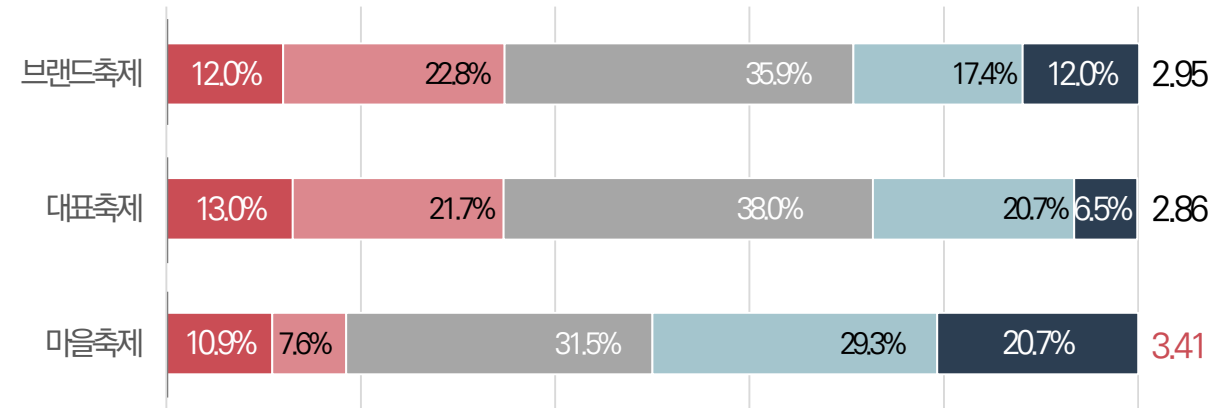
<지원규모>



자치구축제 중 마을축제의 지원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 브랜드 축제와 대표축제는 지원건수가 적절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지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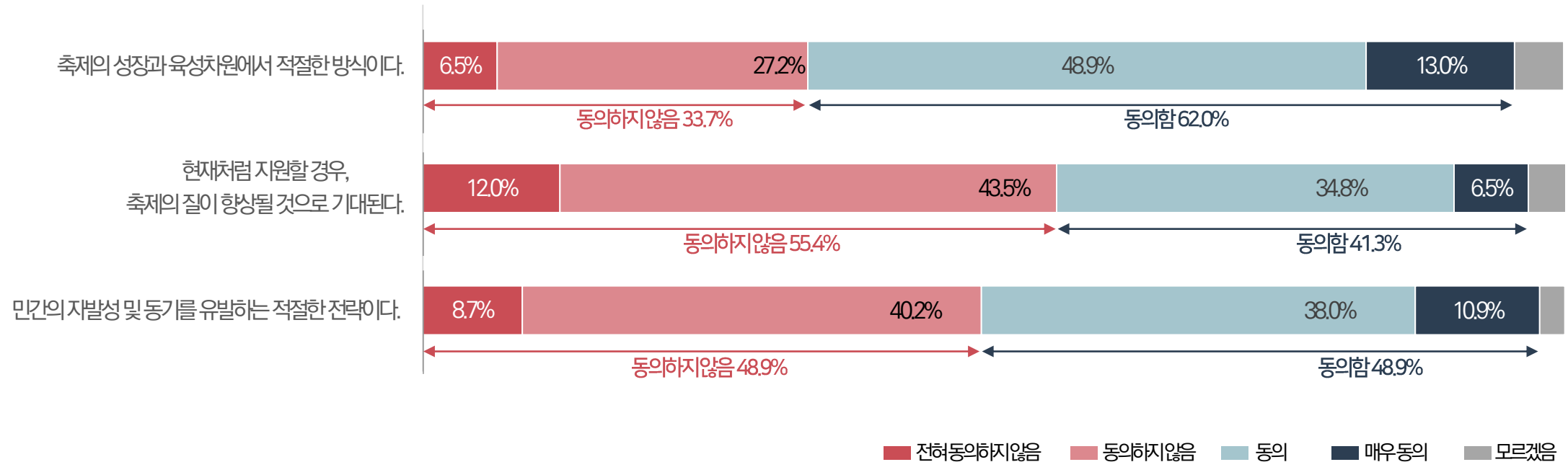
■ 많이줄여야함 ■ 줄여야함 ■ 적절 ■ 늘려야함 ■ 많이늘려야함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 민간 축제

민간축제의 지원 방식이 축제의 성장과 육성차원에서 적절한 방식이라는 데에 과반 이상(62.0%) 동의

- 그러나 축제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55.4%) 더 많아
- 민간의 자발성 및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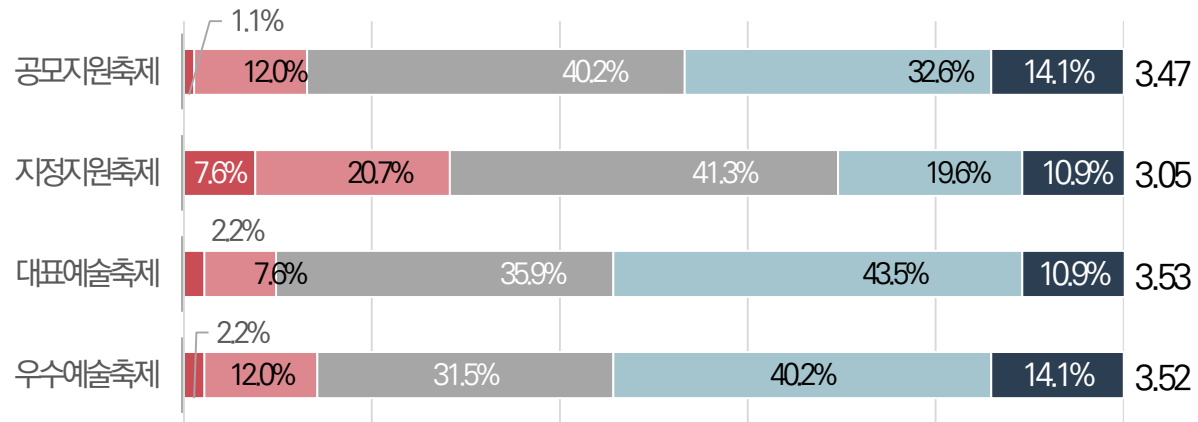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현황 - 민간 축제

민간축제의 지원규모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

- 대표예술축제와 우수 예술축제는 과반 이상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
- 공모지원축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약간 더 높아
- 지정지원축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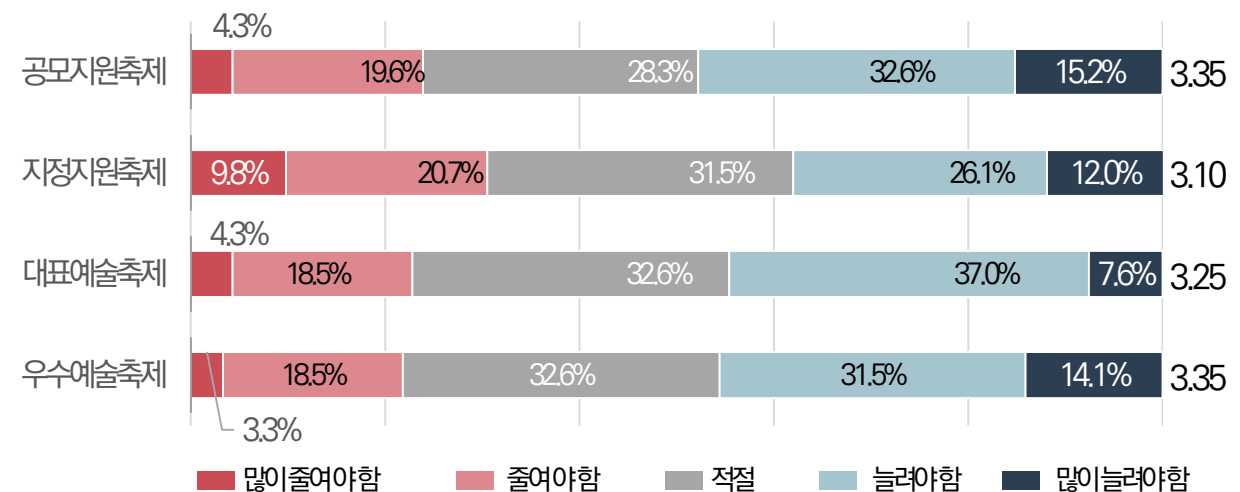
<지원규모>



민간축제의 지원건수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아

- 공모지원축제, 대표예술축제, 우수예술축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 지정지원축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적절하다는 의견, 줄여야 한다는 의견 모두 비슷

<지원건수>



03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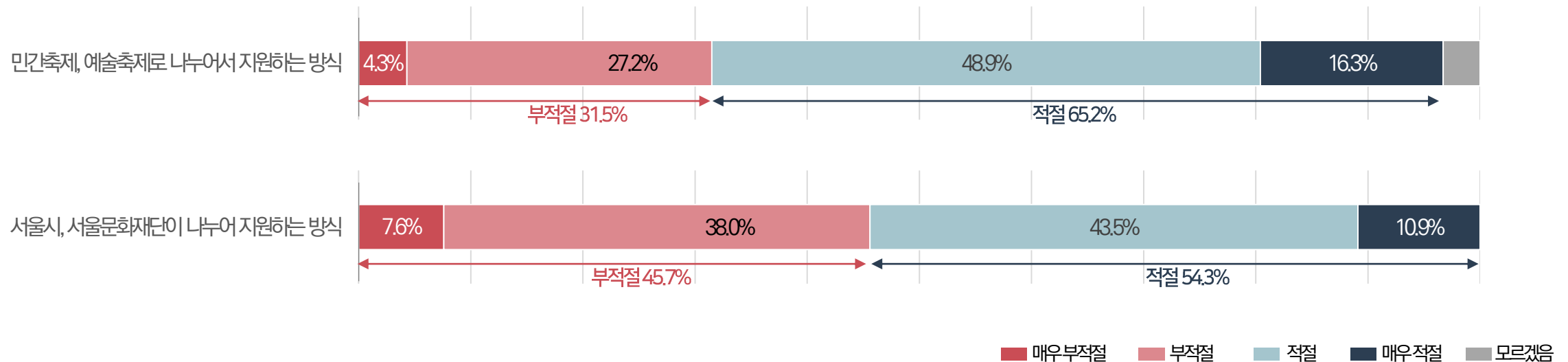
서울시 축제 현황 - 민간 축제

민간축제와 예술축제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65.2%) 나타남

- 부적절 이유: 민간축제와 예술축제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하다(54.3%)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45.7%)보다 약간 더 높음

- 부적절 이유: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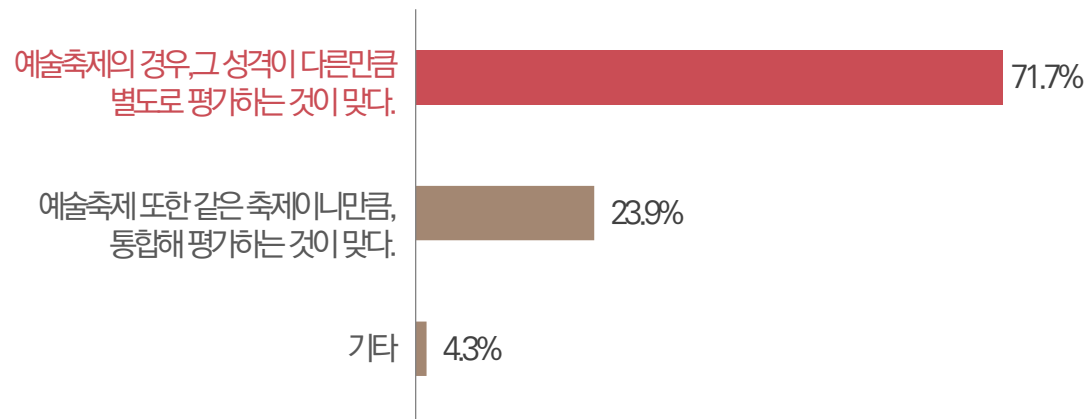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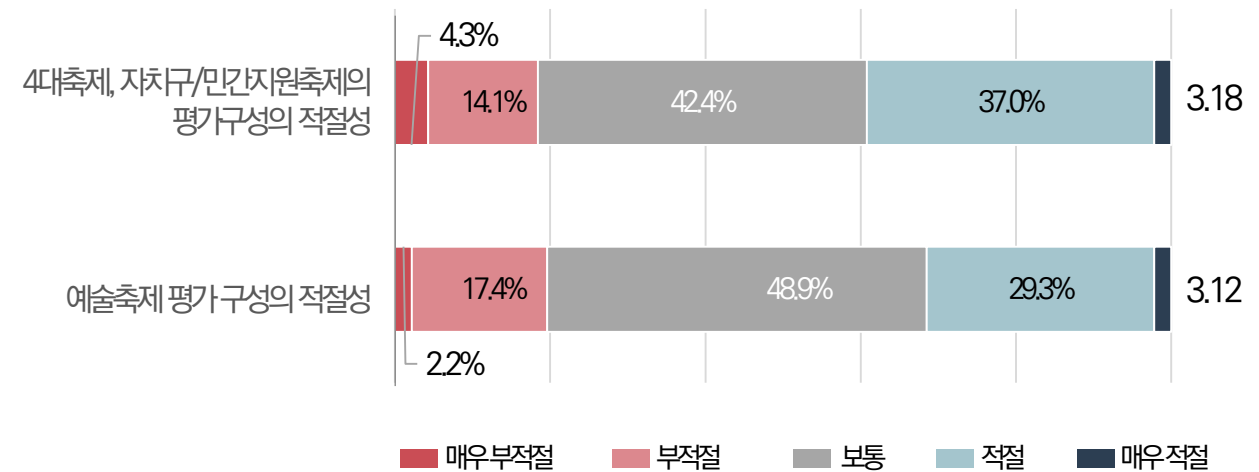
서울시 축제 현황 - 축제 평가

축제는 예술축제와 그 외 축제 등 2개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현재의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71.7%)
평가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2개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축제 평가 구성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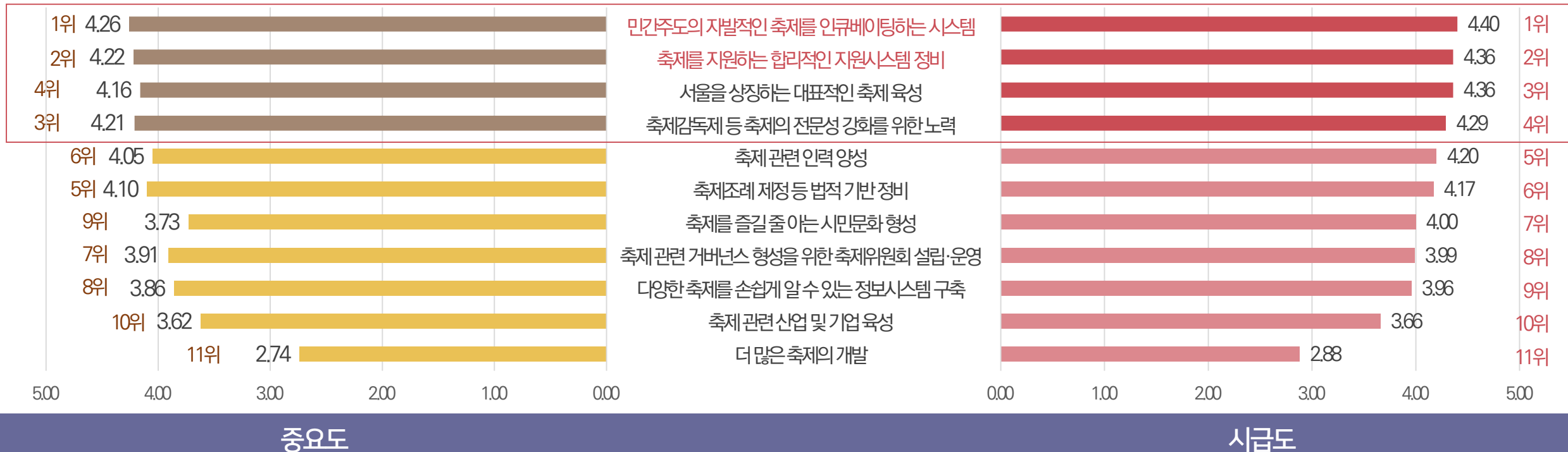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서울시가 축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자발적 축제를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 구축**과 **합리적인 축제 지원시스템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

- 대표 축제 육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인력 양성, 법적 기반 정비 등도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 축제 개발, 관련 산업 및 기업 육성에 대한 시급도와 중요도는 비교적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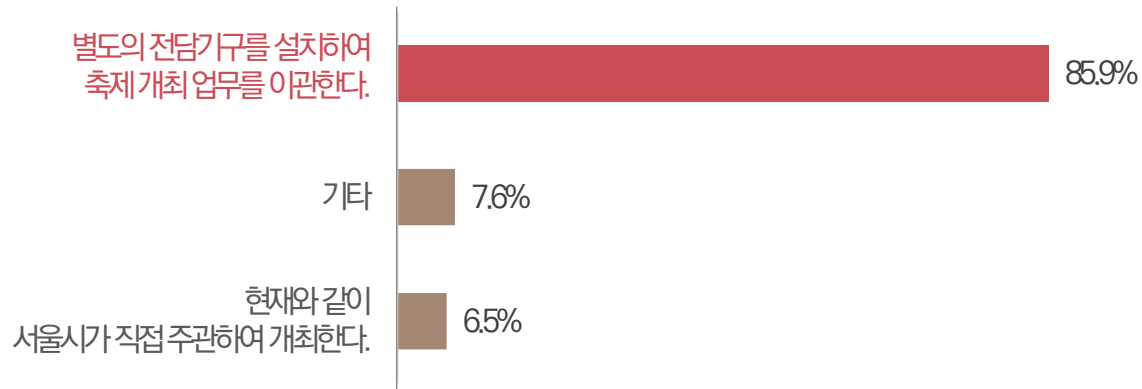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 축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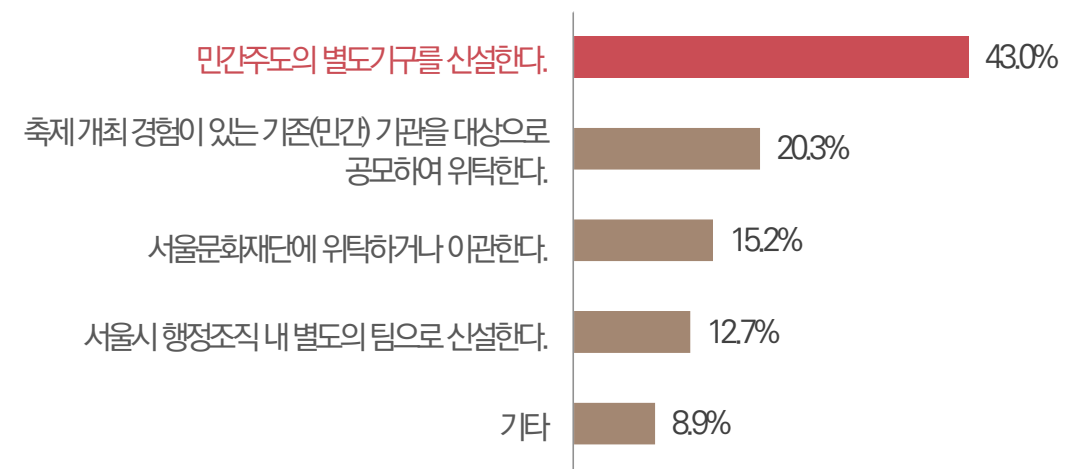
서울시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축제 개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85.9%)

- 전담기구의 형태는 민간 주도의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43.0%)

<서울시 축제 발전을 위한 필요 전략>



<전담기구의 설립·운영 형태>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 축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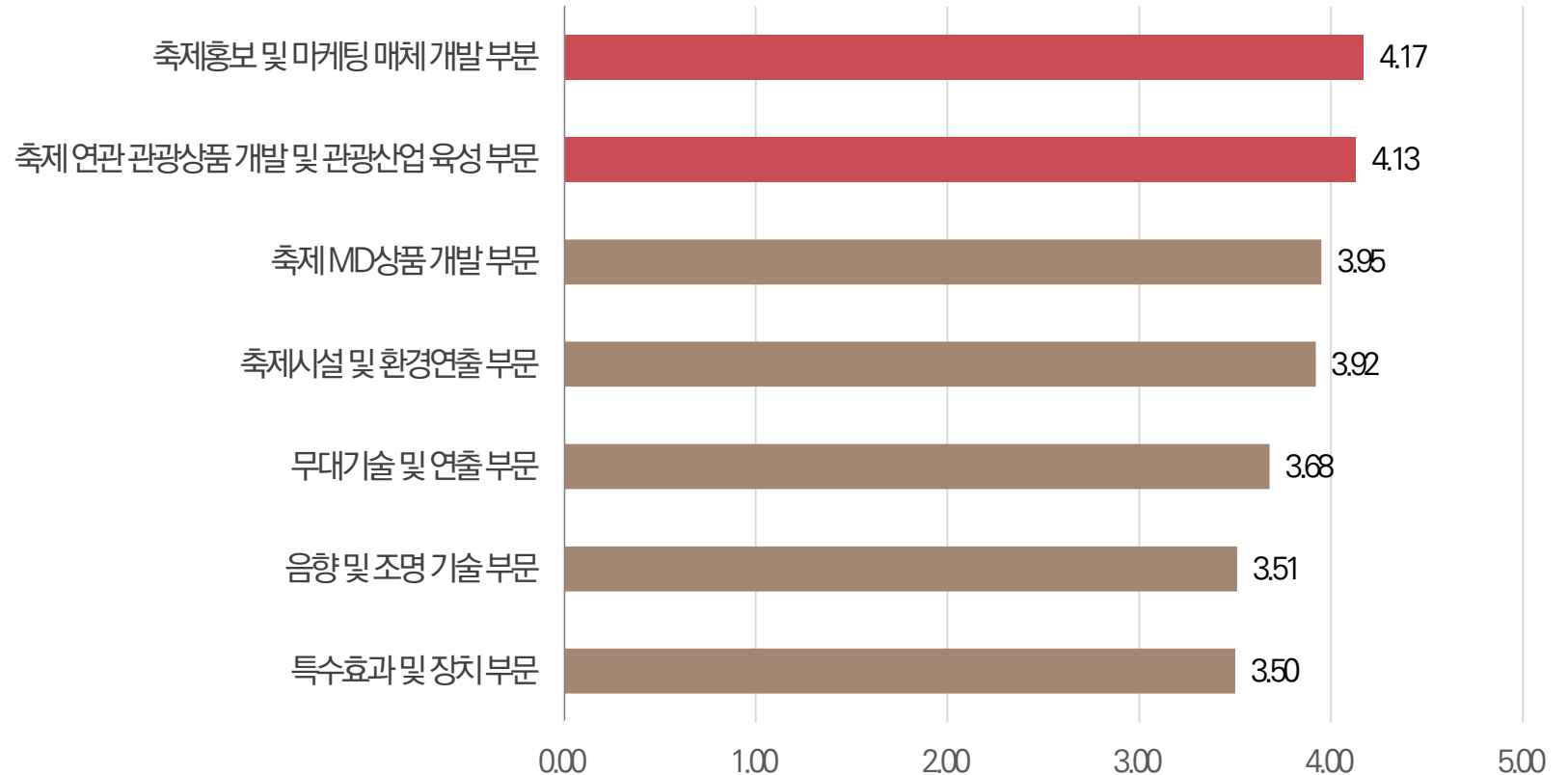
축제 관련 산업 분야 중

가장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축제 홍보 및 마케팅 매체 개발과

축제 연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부문

- 무대기술 및 연출, 음향/조명, 특수효과/장치 등 기술부문의 필요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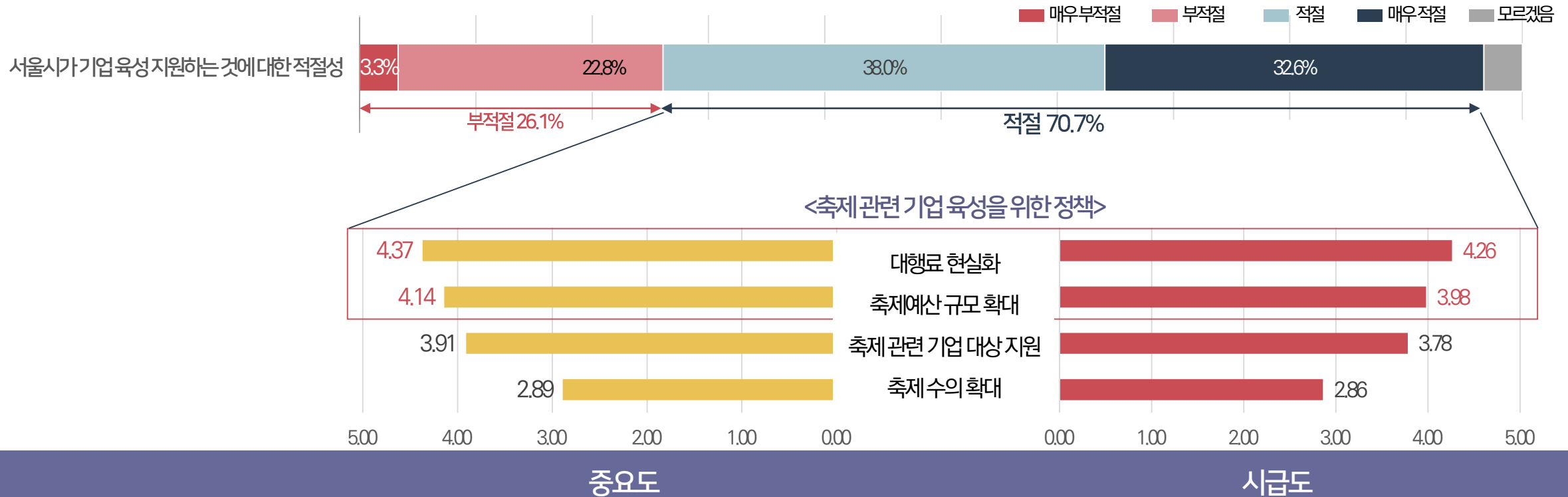
축제 관련 산업 분야 육성의 필요성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 축제 산업

서울시가 축제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70.7%가 적절하다고 생각

축제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행료 현실화**와 **축제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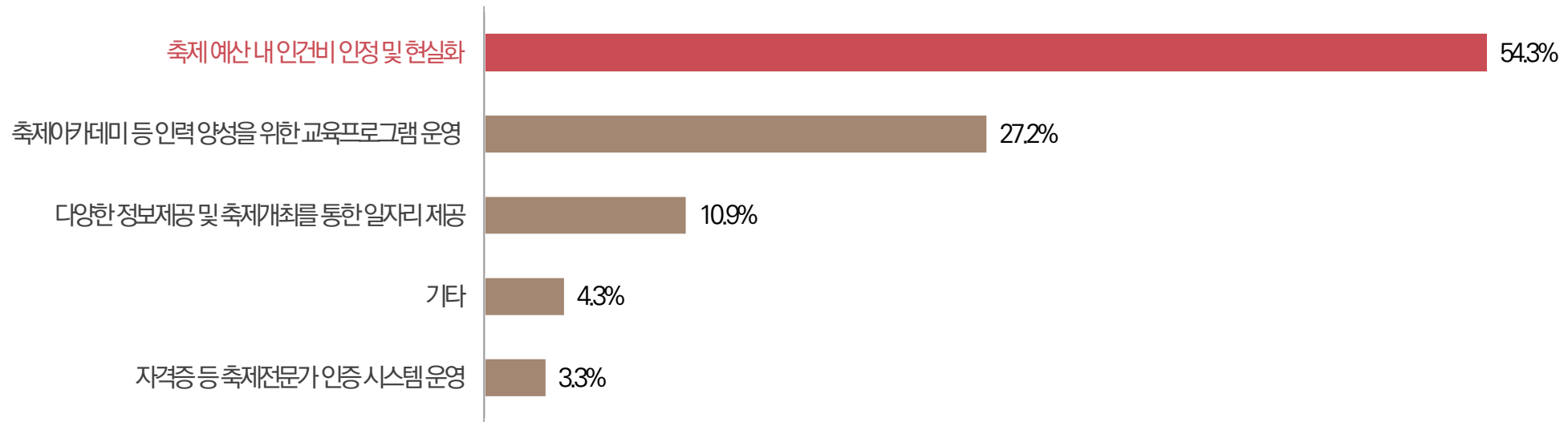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 축제 산업

서울시가 축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축제 예산 내 인건비를 인정하고 현실화 하는 것(54.3%)
축제 아카데미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27.2%)

<축제 관련 인력양성시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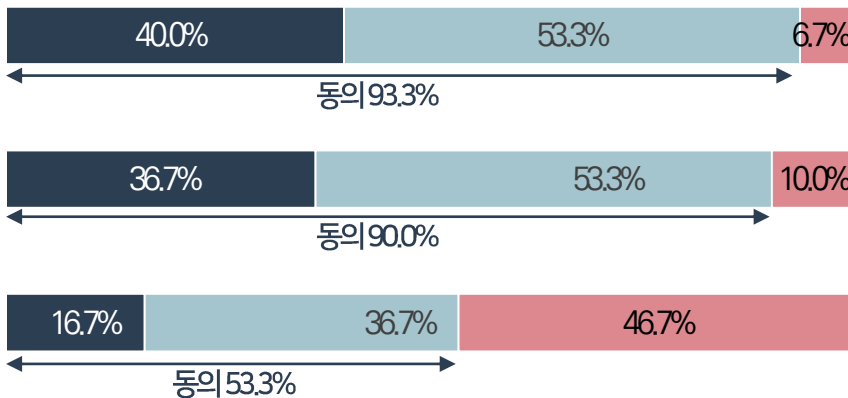
03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축제 정책 방향 – **전망**

축제시장 규모의 확대 및 축제 관련 기업 및 인력 증가에 대해서는 축제 전문가 80% 이상 동의
그러나 최근에 축제시장에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이에 비해 낮아

- 특히 축제감독들이 기타 축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 보다 낮게 나타남

<축제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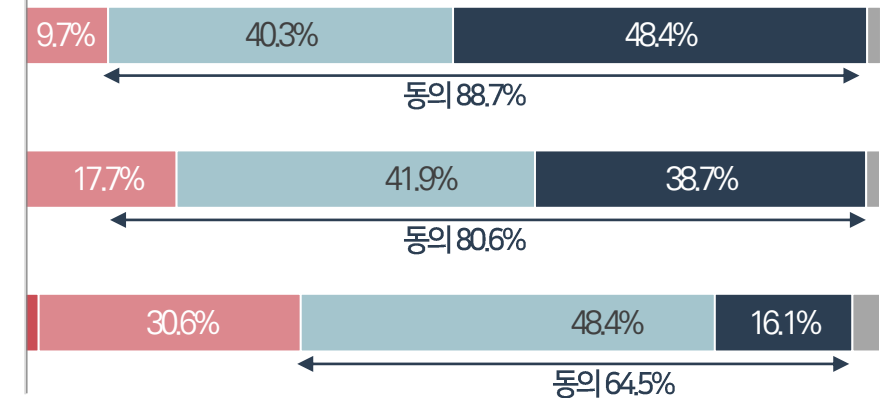


국내 축제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축제관련 기업 및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근 들어 축제시장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축제 관계자>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동의 매우동의



photo Vincent Muteau

IV. 결론: 축제도시 서울 비전과 전략

- 01. SWOT 분석
- 02. TF 회의 및 FG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 03. 축제도시 서울의 미션
- 04. 축제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 05.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01 SWOT 분석

시장가능성 인구 1천만의 도시 ▷ 풍부한 마켓 잠재력 보유 산업적 시장기반 다양한 기획사 및 축제 관련 인력 집중 ▷ 언제든지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 내포 ·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 대상 조사 결과, 총 66개 기업 중 54개가 서울시에 입지 서울시 축제의 진화 관광 등 마케팅 목적의 축제를 넘어 공동체 및 마을 단위의 축제로 진화	짧은 역사 Hi-Seoul Festival 기준 15년 역사 ▷ 도시를 상징하는 축제를 만들거나 축제도시로 이미지를 형성하기엔 역부족 공공 의존시장 대부분 축제는 공공자원에 의존 ▷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환경 일회적 지원체계 육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행사지원 ▷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축제를 발전시키기 어려워
시민 관심 증대 여가와 놀이문화 확대 ▷ 축제참여 시민 증가 정책적 관심 글로벌 관광축제 육성 등 정부의 관심, 서울시 또한 글로벌 음악도시 조성 차원에서 또 다른 축제 기획 시장역량 강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등 조직화 움직임, 행사기획 전문가 인증 등 전문가 양성 노력	지방축제의 성장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지방축제 성장 ▷ 마땅한 축제 아이템 잡기 어려워 지방중심 정책구조 정부 정책은 대부분 지방축제 지원중심 ▷ 인증을 포함, 서울시 축제에 대한 정부지원 어려워 무분별한 남발 여러 주체들의 행사성 축제 만연 ▷ 과다한 남발로 시민관심 약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고 있는 게 현실

02. TF 회의 및 FG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① TF 회의 주요 논점

● 【축제 정책의 기본방향】 관리보다 자원을 중심으로

- 자원은 직접자원이 아닌 간접자원을 중심으로 추진

● 【중장기적 비전 수립】 축제도시로서 장기비전 마련 필요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축제생태기반을 마련, 시장 생태 내에서 자연스럽게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를 위해선 축제자원 및 정책 방향 자체가 변화해야

● 【4대 축제 개최 및 축제 자원】 거리에술축제를 대표로, 성장단계 맞춤 지원

- 거리에술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
⇒ 이를 위해선 상설로 운영되는 축제전담조직 운영
- 민간 및 자치구 축제에 대해선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

● 【축제조직 및 행정체계】 정책 전반의 조율체계 마련

- <축제위원회> 구성, 대표축제 육성 및 민간·자치구 축제지원 등 축제관련 정책 전반 관장
- 시는 문화생태구축 등 축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② FGI 논의 결과

● 【축제 정책의 방향】 축제 개최 중심에서 축제 인프라 및 발전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 축제 개최는 전담조직에 일임
- 시는 축제산업 및 시장, 인력육성,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장소개발 등에 집중 ⇒ 자연스레 축제가 개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

● 【축제 조직 및 시스템 개선】 축제 육성 중심의 시스템 구축,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장산하에 서울시 전체의 축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 설립
- 축제 개최 및 민간 축제 지원 방식 구조화

● 【축제 지원】 축제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지원

- 축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자원전략 마련
- 입찰시스템 개선, 인건비 및 대행료, 일반관리비 현실화 등 축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라이선스 인정 등 새로운 축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02. TF 회의 및 FG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③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 축제 현황】 기본 여건은 좋으나 콘텐츠가 좋지 않아

- 축제 개최 여건, 자원, 산업기반 등은 좋음(3.75 이상)
-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도시이나(3.74), 축제를 발전시킬 만한 정책 부재(2.87)로
- 축제의 질이 낮고, 축제도시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은 게 현실

○ 【대표축제】 거리예술축제가 그나마 유력

- 대표축제로의 현재성 및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대표축제로 육성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구성 필요

○ 【축제지원】 건수는 줄이되, 규모는 키우는 방식으로

- 현재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이라 평가
- 그러나 대표축제로 우수 축제화 가능성, 자발적 동기부여 등에서는 낮은 점수
- 자치구 축제는 건수는 줄이되 규모를 키우고, 민간축제에 대해선 건수 및 규모 모두 키워야

○ 【향후 축제 시장 전망】 대부분 긍정적

- 축제시장 규모의 확대, 축제관련 기업 및 인력의 증가, 우수 축제 인력의 진입 등에 대해선 동의
- 다만, 인력에 대해선 동의 정도가 약간은 낮은 상태

○ 【서울시 정책방향】 민간축제 육성 지원에 집중

-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는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는 것
- 이어, 축제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지원시스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축제 육성, 축제감독제 등 축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상위권 차지
- 인력양성, 조례제정 등은 그 다음 순위를 차지, 축제시장 및 지원정책 개편이 주요 과제

○ 【서울시 산업육성】 축제홍보 및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에 주력

- 더불어 대항료 현실화, 인건비 현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직접적인 정책개입보다 축제관련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03. 축제도시 서울의 미션

여건/현실

여건

- 가능성 있는 시장과 산업 여건
- 관광을 넘어 진화하는 축제
- 높아지는 시민의 관심과 축제인구

현실

- 직접 개최 중심의 축제육성 구조
 - 일회적 재정지원 중심의 지원체계
 - 전담조직없는 비전문적 축제정책
- ▼
- 축제도시로서 상징성과 대표성 부재
 - 낮은 축제의 질
 - 발전하지 못하는 축제시장 및 산업

미션

자연스레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축제
생태기반조성

+

축제발전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전담체계 마련

과제

축제산업 및 시장 육성

축제인력 육성

축제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대표축제 육성

지원체계 혁신

서울축제 홍보마케팅

추진목표

서울
대표축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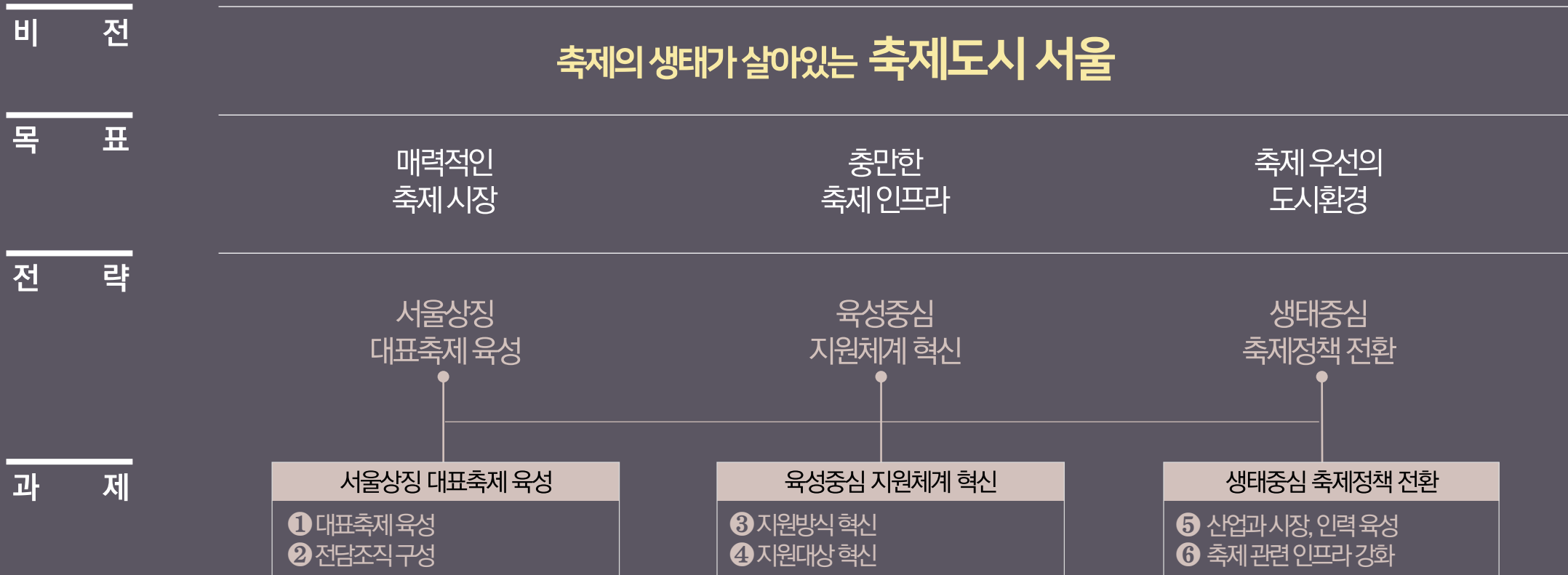
+

합리적·효율적
축제지원체계 형성

+

축제도시 이미지
구축

04. 축제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05.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서울상징 대표축제 육성

① 대표축제 육성

- TF 회의, FG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거리예술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 가능
 - 이에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중심으로 서울 축제 운영
 - 단, 글로벌 음악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계절별 축제 개최 논의가 있는 바 이의 수용 방안도 검토 필요
- 다른 한편,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에 있어 대표축제로의 육성 가능성 고려 필요
 - 시 주관 축제 뿐 아니라 자치구 및 민간 축제에서도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②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운영

-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상설기관으로서 전담조직 운영
 - 전담조직은 대표축제의 범위 및 역할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 가능

	거리예술축제대표축제화	4계절및글로벌음악축제개최주관
역할	거리예술축제 집중 육성 - 여타 축제는 개최 주관	4계절 축제 및 글로벌 음악축제 주관 - 최소 6개 축제 주관
구성 방안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확대 개편 재단 내 설치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조직은 민간 위탁 및 별도 법인 설립 가능 ※ 설문조사의 경우, 별도 법인 설립 의견 다수
장점	손쉬운 실행 집중력 있는 정책 집행 가능	서울시 주관 축제 전담 가능 서울시 주관 축제 질 관리 가능
단점	거리예술축제 외 여타 축제 지속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다수의 축제 주관, 대표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
실행 방안	거리예술축제 외 축제 별도 관리 이에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민간 위탁을 포함한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선행 필요

05.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체계 혁신

현재 지원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행사 지원에 집중

- 성장단계 모호, 재정 중심 지원, 일회적 지원 한계 내포

앞으로 지원

누구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

- 1회 축제에 대해선 가능한 소액다건 지원, 3회 이상 지원 시 성장 여부를 기초로 선택적 지원
- 철저한 컨설팅 및 평가체계에 의한 관리, 등급제 운영을 통해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③ 지원방식 혁신

기본방향

성장단계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추진전략

현 자치구 축제, 민간축제, 예술축제 분리 방식에서 축제를 성장단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 1~3년 차 지원축제, 5~8년 차 육성축제, 9년 차 이상 상징축제로 분류, 각 단계에 필요한 자원 제공

다만, 예술축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자치구 축제와 민간축제는 시가 관리하되, 예술축제는 서울문화재단이 관리) > 지원트랙은 동일하게 유지관리

④ 지원내용 혁신

재정지원 중심에서 행정지원 중심으로 전환

- 컨설팅 지원, 공간지원, 홍보/마케팅, 아카이빙 지원 등 간접 지원 강화
- 특히, 상징축제로 발전할수록 간접지원 강화 → 축제 스스로 독립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체계 관리

이를 위해 축제전담기구 내 축제지원을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치

05.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체계 혁신

현재 지원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행사 지원에 집중

- 성장단계 모호, 재정 중심 지원, 일회적 지원 한계 내포

앞으로 지원

누구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

- 1회 축제에 대해선 가능한 소액다건 지원, 3회 이상 지원 시 성장 여부를 기초로 선택적 지원
- 철저한 컨설팅 및 평가체계에 의한 관리, 등급제 운영을 통해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1~3년차	5~8년차	9년차이상
축제분류	지원축제	육성축제	상징축제
선정요건	서울상징축제로 발전가능성	재정적 자립 및 독립가능성 지원축제 중 선정	재정적 안정성/지속가능성 육성축제 중 선정
지원목표	개최지원	상징축제로 집중육성	지속발전 유도
지원규모	소액다건	다액소건	재정보다 축제지속환경 제공 홍보마케팅/아카이빙/공간제공 등
지원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가능성 탐색 가능성 발견 시 집중컨설팅	집중컨설팅과 모니터링 상징축제로 발전가능성 모색	상시 모니터링 - 축제 발전 및 성과분석

05. 축제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생태중심 축제정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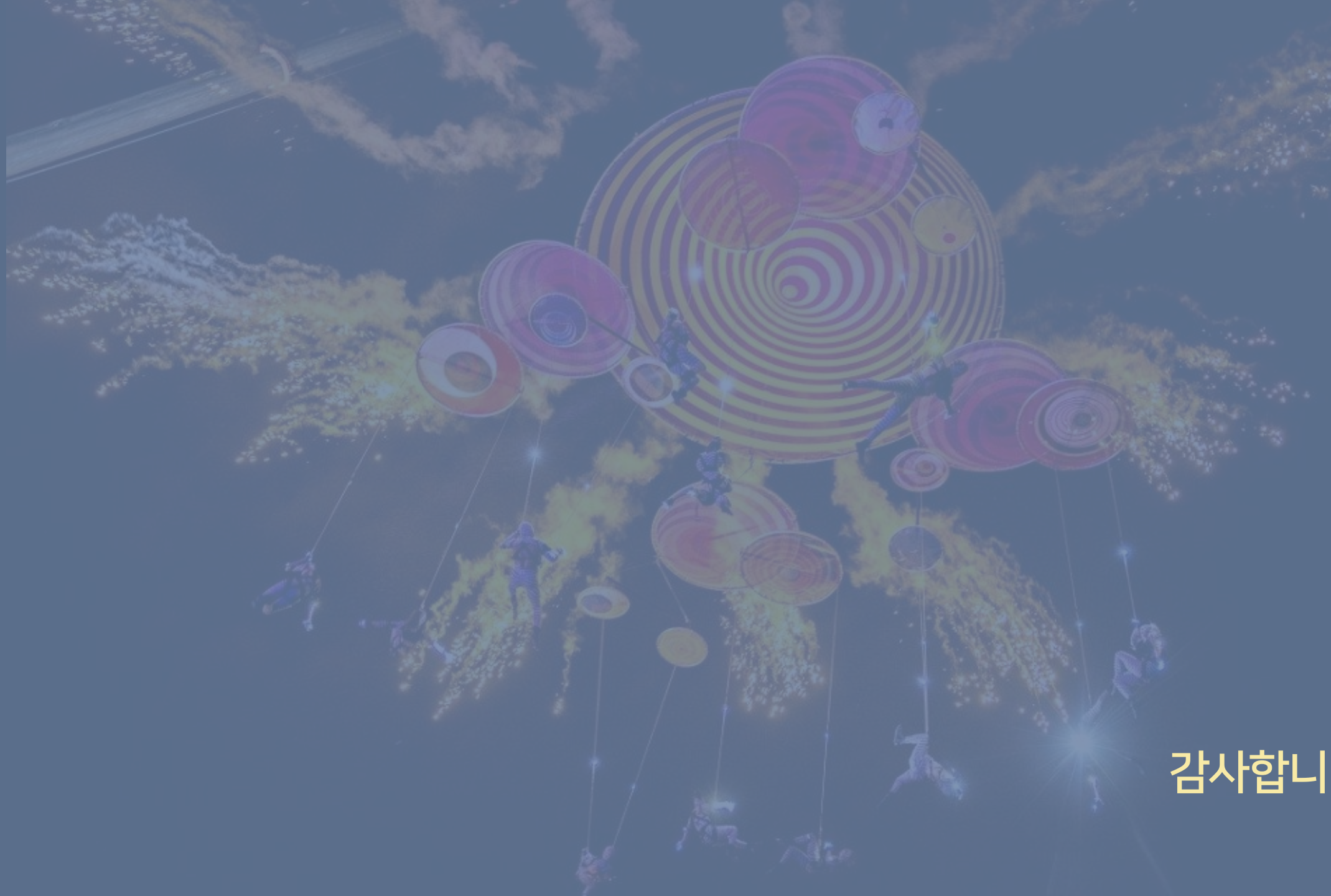
⑤ 축제시장 및 산업, 인력 육성

- 서울은 축제관련 기업 및 인력이 밀집된 도시 ⇒ 축제산업 및 기업, 인력 육성 가능
- 축제시장 및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시의 직접적 개입보다 대행료 및 인건비 현실화, 축제 규모의 확대 등과 같은 환경적 차원의 접근 필요
- 더불어 축제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축제를 전문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전담교육 과정 마련은 더 절실)
 - 대학 또는 민간과 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또는 위탁

⑥ 축제관련 도시인프라 강화

- 자연스런 축제생태 형성을 위해서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도시여건 조성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 인프라 필요
- 이에 △ 축제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및 △ 축제관련 조직체계 재구성, △ 축제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

	방향	추진내용
○ 축제친화형 도시환경 조성	축제개최가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축제개최에 필요한 도시공간 및 시설물의 활용	축제진흥지구 도입·조성 축제조례 내 도시공간 및 시설물 활용 가능성 표기
○ 축제관련 조직체계 재구성	축제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인프라 형성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 : 축제정책 총괄, 축제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 축제전담조직 설치 : 대표축제 및 서울축제 관리운영,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및 관리
○ 축제관련 제도 정비	축제도시로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축제조례 제정 축제개최 중심에서 축제생태환경 조성 및 축제도시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제정



감사합니다.